

만남

09

2023

통권 595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웃보다 사람 김운성

특집 성도의 교제

05 성도의 교제, 말씀 없으면 ‘모래성’ 강준민

09 나눌수록 커지는 은혜 누리세요 박성민

11 신앙생활 함께하니 힘돼요 정순화·윤은진·경영주

14 탁구로 교제, 은퇴없어 더 좋죠 김형태

05



22

16 ‘러브 캘리’ 즐기며 예수사랑 체험 하동균

18 말씀 배우며 신앙의 길 동행 김재희

다음세대 뜨거웠던 여름

21 천상의 예배가 아마 이러했지요 박마로

22 처음 해본 찬양팀 정말 신났어요 이에서

24 하나님 나라에 열린 ‘천국 잔치’ 안태성

26 아주 작지만...Just Shine! 김경미

28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첫 고백 장세영

30 섬김·감사의 의미 깨달았죠 방윤서

32 이번 역은 사랑역...환승열차 탔죠 장현규

35 ZERA! 그 새로운 숲을 거닐며... 최성은

교회표어

말씀따라 행진하라
(민수기 9:23)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만남

2023년 9월호 통권 595호



49

다음세대 청년광장

38 MZ세대에 '실패할 기회' 주자 김동욱

40 AI·빅데이터와 융합한 경영학 김성문

땅끝까지 이르러

44 부족함 채워주신 하나님 큰 은혜 박태상

46 하나님께서 하신 캄보디아 3박5일 전태성

48 해외선교 첫 경험 은혜였습니다 김호훈

49 '십자가의 길'에서 들린 주 음성 최지유

52 몽골에 전한 예수님 사랑 노준영

54 영락 난타 홀로서기 윤일영

영락의 울타리

56 미생에서 완생으로 박화목

58 위·대장 내시경, 40세 이후엔 필수 강은애

교회소식

60 3040세대 연합예배 외

64 일꾼(The Reaper) 정재원

9월 목회력

- 01 금 • 연합 및 금요권찰모임 하반기 개강
- 02 토 •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 03 주일 • 찬양예배 성찬
- 10 주일 • 유아세례식, 제직회
- 10~11/19 • 전도캠페인
- 22 금 • 심방준비회
- 24 주일 • 전교인 만남주일, 사회봉사주일

표지설명

뜨겁게, 은혜롭게 여름을 보낸 영락성도들! 어느덧 가을의 길목.... 소그룹 교제, 기도, 나눔, 섬김을 통해 어려운 순간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 나갑니다.

옷보다 사람

김 운 성 위임목사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행전 27: 22~25)

사람들은 옷이 날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예전에 예비군 훈련장에서 만난 남자들은 모두 노숙자처럼 보였습니다. 예비군복만 입으면 자세가 흐트러지고 행동이 무절제해집니다. 그런데 훈련을 마친 후 사복으로 갈아입고 훈련장을 떠날 때는 말쑥한 신사로 바뀝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옷이 날개라는 말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바울이 그런 경우입니다. 본문의 바울은 초라한 죄수복을 걸치고 있습니다. 예루살

렘에서 체포된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무려 이 년이나 감금되어 있다가 결국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했고, 백부장의 호송을 받아 배편으로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 배에는 선주와 선장, 그리고 바울을 호송하는 로마군 백부장과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특히 백부장이 입은 번쩍거리는 갑옷은 권력과 힘의 상징입니다. 이에 비해 죄수복을 입은 바울은 너무도 불쌍해 보였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께선 옷이 아닌 그 옷을 입은 사람을 봅니다 가을의 문턱, 영혼의 됴됨이로 알곡이 됩시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옷이 날개라는 말을 뒤집는 반전을 보여줍니다. 바울 일행이 탄 배가 미항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자고 제안했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초라한 바울의 말을 믿지 않는 게 너무도 당연하겠지요.

그렇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항해를 강행한 그들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바울을 호송하던 군인들과 선주와 선장 등은 죽음의 공포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배의 선장처럼 의연했습니다. 27장 21절을 보면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가운데 우뚝 섰습니다. 276명의 명실상부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울의 말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바울의 말을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라고 했습니다(22절).

지도자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재산의 유무, 혹은 지식의 유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걸치고 있는 옷이 아니라, 옷을 걸친 사람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도 그것으로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바울이 죄수복을 입게 된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 핍박받았을 뿐입니다. 그의 죄수복은 장차 천국에서 입을 영광의 세마포의 상징이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복을 입었지만,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옷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입은 옷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좋게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주님께서는 옷이 아니라, 옷을 입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옷보다 사람됨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꾸준히 계속해야 합니다. 옷은 금방 눈에 띄니다. 그러나 사람의 됴됨이, 그 영혼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드러납니다. 우리는 가정과 일터, 교회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됴됨이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덧 무더위의 기세가 꺾이고,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가을은 영글고 무르익는 계절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 자신이 영글고 무르익길 원합니다. 옷이 아니라 영혼의 됴됨이로,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길 원합니다. **만남**



가을 그리고 만남

지난 여름을 풍성한 은혜로 가득히 보내며,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을의 길목 '성도의 교제'로
영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한
특별한 시즌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성도의 교제, ‘말씀’ 없으면 모래성

성도의 교제는 신비에 속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영적 신비입니다. 이 교제의 시작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 삼위 하나님의 친교 속으로 초청받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변화됩니다. 새로운 만남은 새로운 깨달음과 세계를 열어줍니다.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만난 사

람입니다.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사람이죠. 가장 소중한 만남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비롯된 성도의 교제를 시작으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시는 까닭

성도의 교제는 성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임과 동시에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소중히 여기시는 것 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의 교제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태복음 18:20). 성도의 교제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함께 교제하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강준민 목사
LA 새생명비전교회

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고린도전서 1:9).

성도의 교제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제는 세상에서의 교제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은 성도간 교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성도간 교제를 나누는 중에 실망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의 교제와 별로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간 교제와 세상 사람의 교제의 차이는 중심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성도간 교제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 중심에 말씀이 있습니다(요한1서 1:1~3).

바울은 그리스도와와의 교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골로새서 3:16~17).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공동체 향한 적절한 기대가 중요

성도간 교제는 아름답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의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성화의 과정에 있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두 사람이 함께 만나 살아가는 것이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렵습니다. 죄인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이기에 성도간 교제입니다. 그래서 성도간 교제가 즐거우면서도 힘듭니다. 때로는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실망도 하게 됩니다. 헨리 나우웬은 “공동체는 함께 살기 싫은 사람이 만드

시 함께 있어야 하는 곳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간 교제를 통해 우리는 환상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의 모형을 이루기 위해 성도들이 모여 교제하지만, 그 안에는 갈등과 긴장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죄인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성도간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성도간 교제는 천사들과의 교제가 아니라 성화되어 가는 죄인들이 만나 교제하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적절한 기대입니다.

분노의 뿌리에는 언제나 잘못된 기대가 있습니다. 잘못된 기대가 분노를 낳으므로 기대의 크기가 분노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도간 교제는 적절한 기대 속에 출발해야 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언제나 만나면 기쁘고, 천국 같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교제를 나누게 되면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지속해서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그 공동체 안에서 변화하고 성숙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공동체 안에서 키우셨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은화 30에 판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서 서로 경쟁하며 질투했습니다. 서로 분노했던 그들은 무기력했습니다. 한 시간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그들은 스승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마태복음 26:75).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 주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마태복음 26:56). 그런 과정을 통해 그들은 공동체를 이해하게 되었고 성도간 교제에 올바른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에서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깨달은 그들은 성령 충만을 통해 변화되었고, 성장하며, 성숙하면서 원숙함에 이르

렸습니다. 그들의 교제는 성령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교제의 몇가지 특징

그동안 목회 현장에서 성도의 교제를 지켜보면서 아름다운 교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제의 특징을 몇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서로의 연약함을 용납할 줄 아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웬은 우리를 친밀하게 만드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연약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연약함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순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이사야 53:2 상). 연약함은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강하면 성공하게 되는 반면 연약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나아가서 성도들과 연합하게 됩니다. 연합은 생명을 낳고 풍성한 열매를 낳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둘째, 성숙한 성도의 교제는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디트리히 본회퍼는 『성도간 교제』에서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주의하라!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과 공동체에 해를 끼칠 뿐이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부르실 때 홀로 그분 앞에 서야 하고, 홀로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 그대 홀로 십자가를 지고 싸우며 기도해야 한다.” 아름다운 성도간 교제를 위해서는 함께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 줄 알아야 합니다.

본회퍼는 이어서 ‘함께 있음’도 강조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홀로 있음을 주의하라! 그대는 공동체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부르심은 그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싸우며 기도하는 것이다. 그대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죽음과 마지막 날에도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공동체를 무시한다면,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도 무시하게 된다.”¹

셋째, 성도간 교제에서 서로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친밀함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친밀함의 가장 큰 적은 지나친 친밀함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의 균형을 이루셨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익숙함은 경멸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친밀함이 아닌 익숙함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친밀함과 익숙함을 혼동합니다. 익숙함은 피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친밀함의 적은 피상적인 교제입니다. 친밀함은 깊이 알며, 알수록 더욱 이해하고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한 후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함부로 대합니다. 서로를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에 서로를 경멸합니다. 존중심은 사라지고 심지어 멸시하게 됩니다.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예절을 지키는 사람이라도, 부부간에는 예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제의 특징은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경계를 서로 인정하고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간격을 잘 유지할 때 풍성해집니다. 이웃집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1 본회퍼 『신도의 공동생활, 성서의 기도서』, 대한기독교서회, 82쪽

는 울타리가 필요한 것처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 지라도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간격을 유지한다는 것은 서로가 숨을 쉬고, 심을 갖도록 여백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어느 정도의 비밀을 간직하도록 선을 지켜 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비밀을 공유할 정도까지 성숙한 관계가 되면 좋겠지만 그 정도의 성숙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숙한 성도의 교제는 서로의 비밀을 간직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고백에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며, 서로의 비밀을 지켜 줄 때 신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존중은 아름다운 성도간 교제의 비밀입니다. 존중이란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의 잠재력을 믿어주고, 극대화해주는 것입니다. 존중이란 상대방 안에 있는 좋은 점과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에 가치를 더해 주는 것입니다. 존중의 반대는 멸시입니다. 멸시란 상대의 가치를 폄하하며 잠재력을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나쁜 점만 찾아내어 흠집을 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도간 교제의 비밀은 존중에 있습니다.

‘함께 있음’과 ‘홀로 있음’ 균형 유지해야

하나님의 나라는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교회는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할 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존중은 배움을 낳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그 사람에게 배울 수 없으므로 누군가에게 배우기 위해서는 존중해야 합니다. 책도 인격체와 같아서 존중하지 않으면 자신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존중은 좋은 것을 이끌어내는 자석과 같습니다. 존중은 존중을 낳고 멸시는 경멸을 낳습니다(사무엘상 2:30 하).



마지막으로, 용서는 아름다운 성도간 교제의 열쇠입니다. 용서하는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베드로전서 4:8). 용서는 죄를 잊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요한1서 1:9, 히브리서 10:17).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과거로부터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새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떠나 현재를 즐기며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성과 헌신과 지혜와 기도를 통해 세워집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간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과 헌신, 지혜와 기도를 통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간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만남**

나눌수록 커지는...
은혜 누리세요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영락교회 소그룹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에는 다양한 여러 소그룹이 있지만 그들과 영락교회 소그룹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소그룹이 바로 영락교회 소그룹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2019년 1월에 소그룹전담부를 새롭게 신설한 이후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에게까지 함께 성장하는 소그룹이 되도록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소그룹 모임

2023년부터 주일 소그룹 모임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주일 본 예배에 참석하여 받은 은혜의 말씀을 주제로 삶을 나누고, 말씀으로 결단하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선교관 지하 제2식당에서 진행되는 이 모임에는 평균 80여 명이 참석하는데, 조별 모임을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며, 말씀으로 결단하는 이곳은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박성민 전도사
성남·분당교구
제자양육훈련부(소그룹)

주일 소그룹 모임 9월 10일부터 재개
 선교관 제2식당서 오후 1시 30분부터
 신앙과 기도의 동역이 필요하신 성도들 초대

9월 10일부터 하반기 주일 소그룹 모임을 다시 시작합니다. 주일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등록 교인에게 열려있는 이 모임에 신앙적인 나눔이 필요한 성도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으신 분이나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필요하신 분을 주일 소그룹 모임에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받을 큰 은혜뿐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일 소그룹 모임에 많은 성도님이 함께하시길 기대합니다.

소그룹의 초대

우리는 성부·성자·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개인의 영역이라 해도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해야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6~47절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아름답게 기억하여, 그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유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힘쓰니,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 갔던 초대교회의 역사가 영락교회 소그룹에도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소그룹들이 확장되어, 영락의 모든 소그룹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전인적 신앙 성장을 이루고, 이를 통해 영락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고 더 나아가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남**

하반기 소그룹전담부 주요 사역 계획

사역	대상	내용	일시(예정)	장소
주일 소그룹 모임	주일예배에 참석한 등록교인 중 신앙적 나눔을 원하는 분	주일 설교 말씀을 주제로 구성한 소그룹 교안 나눔	9월 9일(주일)~12월 3일(주일), 13시 30분	선교관 지하 제2식당
소그룹 리더 교육	소그룹 리더(호스트) 및 예비 리더(호스트)	소그룹 이론 + 소그룹 실습	10월 1일(주일)~11월 19일(주일), 9시 30분	한경직목사기념관 지하 1층

혼자서 힘든 신앙생활 함께하니 힘돼요



말씀 공부하고 실천노트 적으세요

정순화 은퇴권사
성남·분당교구

2022년 가을 성남·분당교구의 시범적 시행으로 1여전도회 회원을 중심으로 주일 소그룹 모임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권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소그룹 모임은 지속되지 못했다.

2023년 4월, 다시 소그룹모임에 참석하여 6월까지 한 학기를 보냈다. 우리는 주일 예배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말씀 내용과 생각을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다. 한 주간의 근황을 함께 나누며 격려하고 축복함으로써 서로에 관해 더 잘 알아가면서 서로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설교를 듣고 내용을 정리하며, 말씀을 곱씹어 생각하는 과정은 그냥 듣고 은혜롭다 느끼고 지나가는 것과는 다른 경험이었다.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글로 쓰는 것은 더 의미가 있었다. 또한 말

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실천을 할지 계획하고 기록하는 것이 신앙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생각은 했어도 실천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실천 목록을 작성하고 잘 실행했는지 체크하는 과정은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생각에 머무른 채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행동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우리가 얼마나 더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은혜·치유의 자리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윤은진 권사
인천교구
갈릴리찬양대

제게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며 우리 소그룹의 활동과 소중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룹은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섬기는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에 치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면, 자칫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 힘으로만 하고자 할까 염려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려고 소그룹 모임을 신청했습니다.

위임목사님의 주일 설교에 관한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탁현수 목사님이 소그룹 교안을 만들어 해설해 주십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치유와 더불어 문제를 해결해주신 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찬양대에서도 지난 3년간 멈춘 여러 사역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심기도가 간절히 필요했지만, 갑자기 많아진 사역으로 각자의 시간 관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게 된 소그룹 나눔을 통해 새로 구성된 총무단은 총무님을 중심으로 서로에 대해 공감하며 협력하여 새로운 사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듣는 모든 성도가 은혜받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섬기며 성장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씨 뿌려지는 소그룹 사랑·쉽·격려의 자리

경영주 집사
서대문·은평교구
소그룹전담부 임원

지난해 말 2023년 소그룹 임원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봉사를 멀리 떠나 있었던 터이고, 상담부에서 한 달에 한번 전화상담 봉사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주님이 인도하심대로 교회 봉사를 하면 좋겠다 바라고 있던 터였습니다. 봉사하게 되면 성경공부 부서에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소그룹부에서 연락이 와서 부르심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남편에게 동의를 구하고, 1년간 봉사하기로 하고 시작했습니다.

교회 내에 1000개의 소그룹이 생기는 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지도목사님이신 탁현수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이미 곳곳에서 진행되고 유지되고 있는 소그룹이 있다는 소식도 들었지만,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가운데 주일 말씀을 듣고 삶을 나누며 적용하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에 대해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봄부터 시작된 주일 소그룹에 백여 명이 넘는 교회식구들이 신청했고, 말씀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시간 전부터 오셔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셨고, 교회 봉사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 소그룹을 하시고 가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같은

본문으로 삶을 나누니 점차 안정적으로 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가 마칠 즈음에는 조가 줄어들긴 했지만 말씀 중심으로 삶을 나누는 소그룹의 경험이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각자 훈련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소그룹이 부담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과 쉽의 자리이며, 격려의 자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소그룹리더교육이 진행될 때에는 참여하신 참가자들이 소그룹 리더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정적인 준비를 했는데, 이미 사역의 장에서 섬기는 분들이 많으셨고, 보다 역량 있는 분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개개의 소그룹의 발달 단계와 성격은 다르지만 소중하고 귀하기에 각각의 소그룹에 맞게 쓰임받을 것이라 기대하게 됩니다. 계속 씨가 뿌려지는 단계이고 소그룹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족한 면이 보이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표현하고 격려하며, 서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소그룹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남**



탁구로 교제, 은퇴없어 더 좋죠 - 영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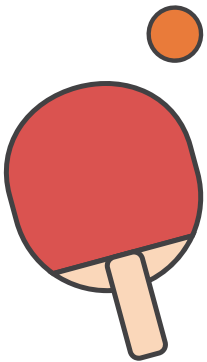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1)

영락교회 성도 중 탁구를 좋아하는 이들을 영탁스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탁스>는 ‘영락 탁구 스포츠선교회’의 줄임말로써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간 교제와 건강증진, 그리고 선교를 목표로 합니다. 10년 전 탁구를 좋아하는 성도들로 시작한 모임 영탁스를 소개합니다.

영락중학교에서 처음 시작한 영탁스. 지금은 매주 월요일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선교관 지하 2식당에 모여서 탁구를 즐기며 성도간 교제를 아름답게 나누고 있습니다. 탁구대 5대와 로봇 1대, 기타 주변 시설을 갖추어 놓고 고수부터 새로 입문하는 분들까지 33명의 회원이 다양한 실력을 발휘하며 함께 어울려 운동하고 있습니다. 매번 기도와 스트레칭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합니다.

실력이 조금이라도 나은 분들은 실력이 낮은 분들을 정성껏 가르치며 함께 시합을 즐기기도 하는 가운데, 서로 세우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회비를 모아 로봇을 구매하여 실력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박용준 목사님이 함께 운동하며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함께 연합하는 귀한 본모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월례회로 영육의 건강을 도모하며, 새문안교회 창립기념 친선탁구대회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농청인 친선 탁



김형태 안수집사
안양·수원교구
영탁스 회장

매주 월요일 저녁 건강한 만남
33명 회원들 섬김과 배려 실천
탁구 통한 선교 작은 씨앗 소망



구대회 등 여러 교회 및 기독교 단체들과 친선경기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중보하는 등 운동을 겸하여 귀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외에도 네팔에서 선교사로 섬기는 고연희 선교사님을 통해 네팔 탁구선수인 영이와 에스더에게 탁구용품과 노트북을 선물하기도 하며 선교사님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교 기금을 조성하여 탁구 선교에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회 내에 탁구 공간이 조성되어 인근 직장인과 이웃들에게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탁구는 전신운동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유연성과 순발력이 떨어지는 노년기에 적합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칼로리 소모가 많아 체중 감량에도 효과

적이며, 작고 빠른 공을 쫓는 과정에서 시력이 향상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잘 쳐도, 못 쳐도, 실수해도 함께 웃을 수 있는 탁구는 시합에서 지고 이기는 작은 경쟁을 통해 적절한 긴장감을 주어 생활에 활력을 주는 운동입니다. 영탁스의 가장 좋은 점은 은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함께 땀 흘리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모임입니다.

영탁스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가며 교회 공동체를 더욱 굳건히 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며 교회 생활에 즐거움과 기쁨을 더하는, 귀하고 건전한 성도 간 교제의 장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만남**





‘러브 랠리’ 즐기며 예수사랑 체험

- 영락 테니스 커뮤니티(YTC)

영락 테니스 커뮤니티 (Youngnak Tennis Community·YTC)가 출범한 지 2년이 되었다. 이 소중한 순간을 맞아 먼저, YTC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올해 상반기는 매주 정기모임, MT, 영락 테니스 대회를 진행하면서 많은 청년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냈다. 필자는 젊은 세대가 테니스에 열광하는 이유와 YTC 공동체의 비전을 성취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자 한다.

하나님과 교류 많은 테니스 랠리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중 사람 간 접촉이 적은 테니스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테니스가 ‘고인물’ 스포츠로 인식되어 진입장벽이 높았지만, 이제는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며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청년들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예약 사이트가 금방 마비될 만큼 코트 예약이 어려워지고, 오픈 채팅방으로 코트를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잡았다. 주말에는 사설 및 공공시설 코트가 동호회 및 젊은 세대로 붐비면서, 테니스를 처음 접하는 테린이(테니스+어린이)들은 레슨이 아닌고는 게임을 즐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들이 함께 운동하고 교류할 수 있는 청년부 YTC 공동체를 창설했다.

초보자 레슨, 게스트 전도, 맛집 교제...

YTC의 목표는 ‘테니스를 통한 영과 육의 건강한 공동체 형성’이다. 테니스 게임 중 양편의 타구가 계속 이어지는 랠리 과정은 하나님과의 교류와 비교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죄의 유혹에 직면하기 쉽다. 라켓에 힘을 너무 강하



하동균 성도
청년부 꿈꾸는땅
YTC 부팀장

게 주면 공이 원하는 방향을 비껴가는 상황이나 공이 네트에 걸려 좌절하는 모습 등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해 보인다. 테니스 랠리를 원활하게 이어가려면 충분한 연습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도 기도 연습을 통한 대화를 배워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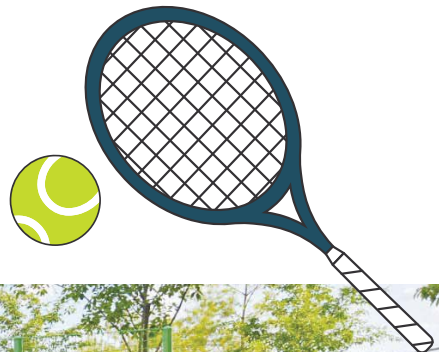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다” (요한일서 1:7) 게임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교제를 힘쓰고 있는 YTC 공동체 구성원은 초보자 레슨과 랠리, 코트 예약, 차량 지원, 게스트 전도 등 이외에도 모임 후 맛집에서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다.

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영락테니스회>의 장년 15명과 테니스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교회 공동체는 혼자 운영할 수 없음을 깨달았으며, 연합하여 한마음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랑을 체험했다. 부족한 부분은 <영락테니스회> 도움으로 대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매년 정기 테니스 대회를 통한 교류를 계획하고 있다.

필자와 신승원 팀장은 YTC 공동체는 ‘청년부를 넘어 장년과 청년이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영락교회와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소중한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소망한다. **안녕**

청·장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 꿈꿔

코로나19로 소그룹 모임이 축소되었지만, 교회 예배가 회복되면서 모임이 활성화하여 다양한 공동체가 부흥하





어린이 같은 순수함으로... 말씀 배우며 신앙의 길 동행

2016년 소그룹의 첫 만남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요즘은 손주 돌보기, 이사, 사업 등으로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톡방에서 소식, 말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만나면 서로 더 베풀려고 아우성을 떠니 우리 모임은 베품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늘 함께하는 자매 된 자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성소그룹 제자훈련서 5명 인연 어느덧 7년

우리 모임은 여성 소그룹 제자 훈련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전도회를 통해 친하게 지내던 백경이 권사님께서 소그룹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다섯 명의 소그룹 인원 중 두 분은 오랫동안 영락교회를 다녔으나 직장 생활로 인해 교회 봉사나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퇴직하면서 제자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섯 명은 황광용 목사님(현재 보광중앙교회 위임목사)과 함께 매주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나누며 소그룹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

리 다섯은 소그룹이 아니었다면 만날 기회도, 또 친해질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이, 경력, 가정환경이 모두 다른 우리가 이런 만남을 통해 기도 제목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언니, 동생, 그리고 막역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린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 기도했고, 황광용 목사님께 모르는 성경 지식을 질



김재희 권사
종로·성북교구
2016 여성소그룹제자훈련

문하며 신앙생활 중 힘들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은 올바른 신학적 답변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주셨고, 우리 그룹원들도 자기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며 그 안에서 답을 찾고 은혜를 받아 상쾌한 마음으로 헤어지는 풍성한 만남이었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일상·기도 공유하는 ‘톡 쏘는 자매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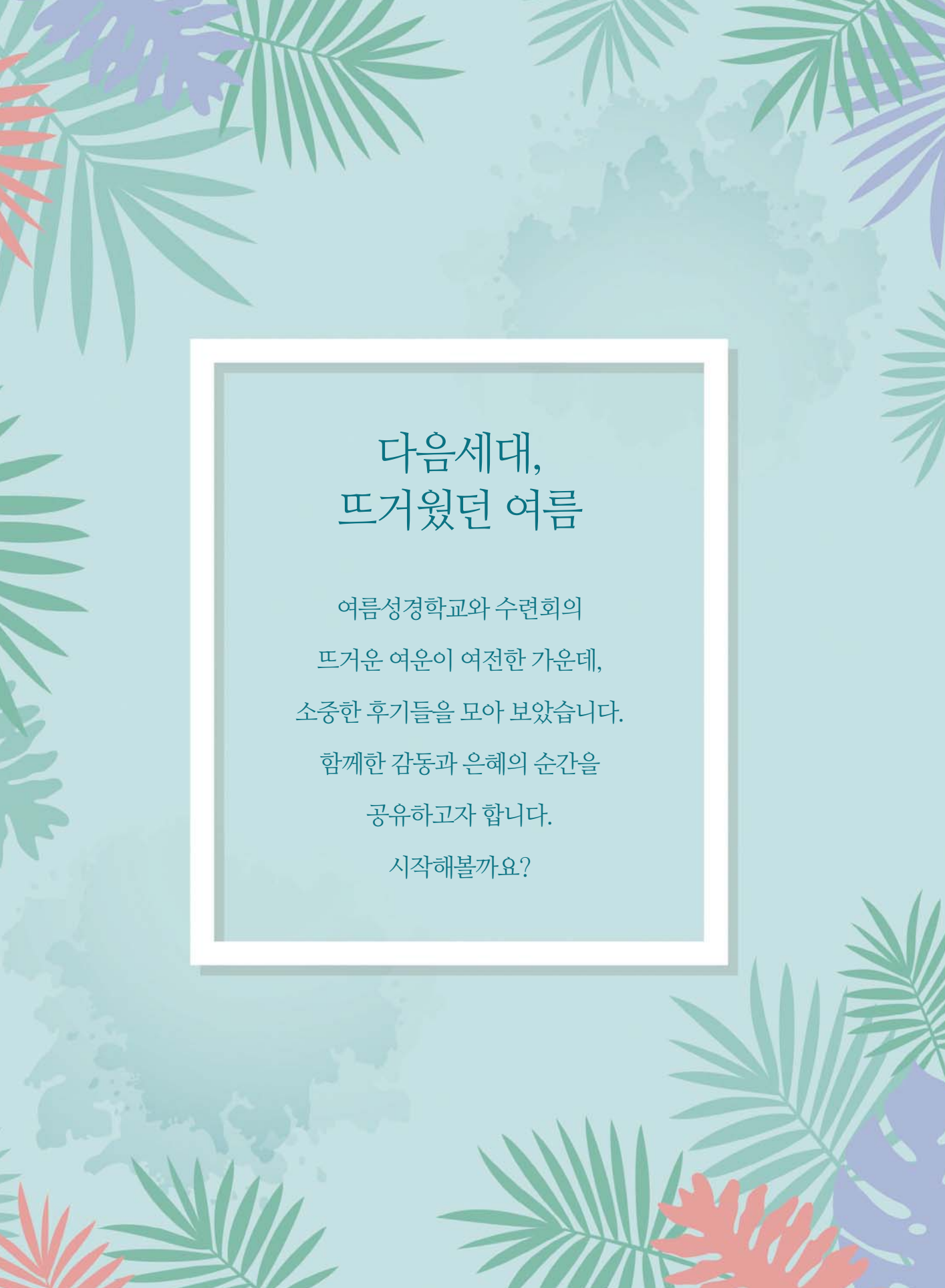
우리의 공식적인 소그룹 모임은 2016년 말에 끝났지만, 여전히 우리만의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최연장자이며 교회에서 뜨개질을 가르쳐 주시던 최선희 권사님은 언제나 큰언니처럼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강릉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신 후에는 농사를 얼마나 잘 지으시는지... 이웃들과도 마음을 열고 친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땀 흘려 농사지는 옥수수과 감자를 바리바리 썰겨 택배로 보내주시니 황송할 따름입니다! 백경이 권사님과 김혜자 권사님은 손녀를 돌보느라 무척 바쁘십니다. 강릉에 한 분만 계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일까요? 박선이 집사님은 서울과 강릉을 오가며 서울과 강릉 그룹원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세상친구들은 이해 못하는 은혜 나눠

우리는 이 소그룹 활동을 통해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세상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기도의 화살통이 되었습니다. 소그룹이 시작될 당시에는 각 가정에 어려움과 슬픈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카톡방에 공유된 기도 제목에 함께 마음 아파하고 애달파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나누기 힘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슬픔은 나누며 반으로 줄었고, 기쁨은 나누며 배로 키워졌던 것 같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최 권사님께서 강릉에 농사지을 땅을 조금 더 사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진학, 취직, 결혼, 출산을 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일처럼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며 강남교구 소속이라는 공통점은 없어졌지만,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기에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더 의미 있는 진한 만남을 계획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만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만남**

The background of the entire page is a light teal color with a pattern of stylized tropical leaves in various shades of green, purple, and red. The leaves are scattered across the page, with some larger ones in the corners and smaller ones interspersed. A white rectangular frame with a thin grey drop shadow is centered on the page, containing the text.

다음세대, 뜨거웠던 여름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의
뜨거운 여운이 여전한 가운데,
소중한 후기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함께한 감동과 은혜의 순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사랑부



천상의 예배가 아마 이러겠지요

월말부터 사랑부 섬김을 시작한 저는 지난달 28일 여름 성경학교 선발대로 떠나기 위해 일찌감치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기대와 부담감으로 출발하여 여름성경학교 장소인 남한강을 바라보는 코바코 연수원에 도착한 순간, 마음에 여유를 주는 풍경을 발견했습니다. 사랑부 일원인 저는 찬양팀으로 섬기며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동안, 생소한 찬양을 연습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첫째 날! 여는 예배를 드리는 순간, '아! 진정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천국잔치 같은 모습일 수 있을까!? 감격스러웠습니다. 기뻐서 울동하며 찬양하는 우리 사랑부 학생들의 모습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였고,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동안 힘들다고 생각했던 저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마로 성도
청년부 주는나무
사랑부 교사

오리엔테이션과 투게더 워십 등으로 빠르게 지나간 첫째 날 저녁에는 저와 부장님 그리고 학생 두 명이 방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학생들과 의사소통이 어색할 수도 있고, 함께 지내면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함께 묵고 먹으며 보내는 시간은 대화가 없어도 서로 이해하고 돌봄으로써 마음이 회복되는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둘째 날! 이날도 너무나 특별한 순간이 많이 기억됩니다. 무더운 땀별 아래서도 정해진 마을 별로 사진을 찍으며 분주히 움직였고, 300 용사 출정식을 열며 언덕 위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물풍선 던지기과 물총 싸움을 즐겼습니다. 덥지만 모두가 즐겁고 시원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에는 비누로 칼과 나팔 등의 모양을 만들거나 도자기 핸드페인팅으로 향아리를 만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선발대로 출발하며 부담스러웠던 부분 중 하나는 제가 운영하는 공방에서 준비한 도자기 핸드페인팅이었습니다. 준비하고 이동하는 과정 중에 초벌 기물이 깨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진행 중에 체력적으로 힘들어질 것 같아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많은 선생님이 도와주셨



기뻐 울동 찬양하는 사랑부 천사들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까 감동
함께 먹고 자고 씻으며 하나된 경험

고, 초벌 기물이 깨져서 다치는 사고나 큰 어려움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달는 예배 순간까지도 사랑부 여름성경학교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 생활 중에도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 있

도록, 공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말씀묵상과 기도로 하루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천국잔치를 맞볼 수 있게 해준 사랑부 모든 구성원에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만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6~18)

| 다음세대 | 뜨거웠던 여름

아동부

처음 해본 찬양팀 정말 신났어요!

소년부 여름성경학교를 다녀와서

올해 여름성경학교는 소년부에서 보낼 마지막 성경학교였는데, 그래서인지 더욱 기대가 컸습니다. 차를 타고 교회를 향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신나서 마음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지하철과 마을버스를 타고 기도원으로 가는 길은 힘들고 더웠지만, 여름성경학교 주제곡인 '믿음의 영웅'을 들으며 기운 내서 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도착

했을 때, 신기하게도 힘들었던 마음은 사라지고 기쁜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 찬양팀으로 섬겼습니다. 처음으로 찬양팀에 서는 것이어서 '내가 실수하면 어찌지...' 하는 마음으로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찬양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기쁨이 커져서



실수해도 괜찮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섬긴 찬양팀은 너무나도 기쁘고 신났습니다. 회중석에서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이 찬양과 율동에 열심히 참여할 때 너무 기뻐했습니다.

여는 예배가 끝난 후에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활동했습니다. 소년부 장로님이 나오셔서 퀴즈를 내주셨는데 저희 조는 문제를 맞힐 때마다 환호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문제를 많이 맞힌 저희 조는 정말 신났습니다. 프로그램 후 첫째 날 저녁예배는 여는 예배만큼 신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힘든 일과 슬펐던 일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니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회가 끝나고 첫째 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강사님이 오셔서 강의해주셨는데요. 특히 강사님이 노래를 부르셨을 때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코너학습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조가 정말 열심히 참여해서 함께하니 매우 즐거웠습니다. 물놀이도 재밌고 정말 매우 신났습니다. 저녁 집회와 기도회까지

마무리되었는데, 모두 잘 진행되어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셀러브레이션 시간에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며 율동할 때는 정말 신나고 기뻐했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작년보다 더욱 기쁘고 신나는 마음이 넘쳐났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준비해주신 예배도 너무너무 재밌었고, 조 친구들과 팀 활동을 협력하며 진행한 성경학교 시간이 정말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보낸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서로 더 친해졌고, 처음으로 해본 찬양팀 활동도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고 더웠지만, 기쁘고 즐거웠던 여름성경학교였습니다. **만남**



이에서
소년부 6학년



영·유아·유치부

하나님 나라에 열린 ‘천국 잔치’

“하나님께 예!예!예!”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자라나길 소망하며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취학아동 부서를 처음 맡은 저에게 영·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는 기쁨과 환희 그 자체였습니다. 함께 준비한 사역자들은 기쁨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다해 도왔고, 각 부서의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한 중에 모든 일을 순탄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가 있다면, 바로 여름성경 학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내 마음을 스칩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가 얼마나 값진지, 그간 준비한 모든 시간에서 느꼈던 피곤함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하모니로 베다니 광장과 50주년기념관을 채웠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가 흐르고 흘러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참여한 모든 이에게 매 순간을 큰 기쁨과 감사로 즐기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참여한 아이들과 모든 분의 행복한 미소와 웃음소리가 마음이 감동하기에 충분했다”라고 한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름성경학교에는 화려한 밴드와 뜨거운 기도는 없었지만, 아이들의 까르르 웃는 소리와 말씀을 체험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기뻐 받으시는 “하늘나라 천국잔치”라는 것을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안태성 전도사
유아2부



베다니광장 가득했던 아이들 웃음소리
하나님 기뻐 받으신 아름다운 하모니

영락 천사들이 믿음 안에 자라납니다

영·유아·유치 친구들은 하루하루 다르게 자라납니다. 키가 자라고 언어가 늘어가며, 보고 느끼는 것을 빠르게 습득하고, 말씀도 전달하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이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 가득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5월 5일에 열린 “꽃들의 잔치”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즐겁게 경험하며 자라나도록 마련된 이 잔치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에 말씀을 배우고,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를 공부하는 장소에서 마음껏 뛰어다니며 교회를 누리는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교회 공동체가 찾아오고 싶은 곳으로, 행복한 교회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여름성경학교’와 ‘꽃들의 잔치’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

는 시간이 됨을 믿기에,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사편 50:5)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자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얻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여 미래의 주역으로 자라나는 시간이 될 것을 믿으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순수하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만남**



‘예수님의 삶 따라 빛을 비추자’
아이들 즐겁게 배우며 친구 나눠
헌신의 기쁨 알려준 주님께 감사

CebC

아주 작지만 ... Just Shine!

CebC 여름성경학교

2022년 7월 31일, 주보에 실린 CebC 교사 모집광고를 보고, 그 다음 주 8월 7일에 교육관 4층을 찾아갔다. 이제 어느덧 CebC 교사로 1년이 지났다. 2002년에 시작한 CebC는 작년에 20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렸다. 예전에 교사로 있었던 창원 상남교회에도 어린이 영어 예배가 2008년부터 있었는데, 당시에 초등학생 대상의 ‘어린이 영어 예배’가 있는 교회를 여러 곳 방문했다고 들었다. 이제 보니 CebC를 벤치마킹했다는 생각이 든다. 2008년에도 어린이 영어 예배부를 시작하며 교사를 모

집한다는 교회 광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그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누린 12년이라는 소중한 경험 때문에 자연스럽게 CebC를 찾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Let’s Shine, Jesus’ Light! 예수님의 빛을 비춰요.’

2023년 CebC 여름성경학교는 8월 4일(금)부터 5일(토)까지 영락기도원에서 열렸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복음

5:16) 말씀을 바탕으로 'Let's Shine, Jesus' Light! 예수님의 빛을 비추요'라는 주제로 예수님을 따라 빛을 비추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이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고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였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주변에 나쁜 행동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두워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제 죄의 어둠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삶이 힘들거나 어두울 때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변을 둘러보고 아주 작은 선행을 통해 Just Shine! 그저 비추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옳은 길을 찾고자 노력하며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노력을 귀히 여기고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의 빛을 닮아서 친절하게 행동하고 남을 사랑하며 정의로써 행동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우리 이웃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CebC를 통해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다. 처음 CebC에 들어오고 며칠 되지 않아 여름성경학교를 했는데, 작년에는 토요일에만 참석했다. 처음 CebC에 온 날, 서먹하고 낯선 상황이었지만 내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 준 선생님 덕분에 편안한 첫날을 보낼 수 있었다. 그 선생님의 소개로 영락교회 청년선교회(이하 청선회) 모임에도 참석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청선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신앙생활하고 있다. 또한 청선회 활동 중에 만난 또래 친구가 CebC에 참여해보고, 3월부터 CebC 선생님이 되었다.

준비하시는 전도사님, 선생님들의 헌신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기쁨

공과 공부와 게임을 준비하는 선생님의 마음과 손길에는 오직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설교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과와 야외 신체 활동을 통해 어떻게 아이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 뿐이었다. 수경을 쓰고 대야에 담긴 물속에서 영어 성경 구절을 찾는 활동을 위해 성경 말씀이 물에 젖지 않도록 코팅하는 준비, 80명 가까운 아이들이 마음껏 물풍선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물풍선 1,000개 제작, 보로노이 빛 상자를 비출 손전등 고리를 '가네 수작업'으로 연결하고, 손전등 표면에 여름성경학교 스티커를 붙이고 건전지를 하나하나 넣는 작업을 준비했다.

여름성경학교 둘째 날에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0분씩 네 개 코스를 이동하며 코너 학습을 진행했다. 준비한 사랑에 보답하듯, 아이들은 물총놀이 시간에 전도사님에게 애정을 듬뿍 담아 물총을 쏘며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 이런 순간을 통해 흐뭇한 기분을 느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CebC 선생님이고 싶다. 오늘은 토요일, 내가 담임을 맡은 4학년 Ruth반을 만날 설렘 가득한 마음을 품고, 내일 주일을 위해 일찍 잠을 청해야겠다. **만남**



김경미 성도
서대문·은평교구
CebC 교사



중등부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첫 고백

7월의 마지막 금요일, 이른 아침에 기분 좋은 햇살을 느끼며 눈을 떴다. 기다리던 2박 3일의 여름수련회가 온 것이었다. 중학교를 마친 후 유학을 가게 될 나에게는 중등부에서의 마지막 수련회가 될 수도 있었기에, 너무나도 특별하고 소중했다. 특히 수련회를 기다리며 “하나님, 제가 외국에 가서도 이번 수련회에서 받을 은혜와 행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많이 기도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인 ‘Rejoice(기뻐하다)’에 맞게 정말 누구보다 2박 3일을 기쁘고 은혜롭게 즐기고 와야겠다고 다짐하며 집을 나섰다.

유학 앞둔 중등부 마지막 수련회 “즐기자” 다짐

첫째 날, 수련원에 도착해 여는 예배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후, 바로 물놀이장으로 향했다. 서로 물에 빠뜨리고 장난치면서 굉장히 뜨거웠던 오후를 시원하고 재밌게 보냈다. 중간중간 선생님들께서 준비해주시는 과일과 간식을 먹으니 에너지도 계속 충전되는 것 같았다. 무척 즐거웠던 물놀이가 마무리되고 1일 차 저녁 집회가 시작되었다. 친구들과 맨 앞자리에 앉아 기도로 예배를 준

비했고, 위십할 때는 뛰면서 뜨겁게 찬양했다. 설교 중에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어, 하나님 항상 제 곁에 있어 달라고, 제가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편안한 곳과 좋은 친구들이 있으니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만약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계속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걱정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다는 생각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러자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아서 크게 감동했다. 모두가 서로를 껴안으며 함께 울면서 기도하다가, 받은 은혜로 다시 더욱 뜨겁게 찬양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루가 마무리되었다.

둘째 날, 아침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설렘과 감사를 느꼈다. 오전에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간단한 게임과 협동 게임으로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냈다. 오후에는 조별로 팀을 이루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점수를 얻었다. 선생님들의 정성과 노력이 담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재미와 감동을 함께 느꼈다. 친구들과 더욱 돈독해진 마음으로 맛있는 저녁 식사도 마치고 어느새 저녁 집회가 다가왔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짓고 또 지었는데, 주님은 언제나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신다는 것을 느꼈다. 여태껏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진심으로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라고 입으로 고백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며,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나 역시 친구들, 동생들, 선생님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다. 친한 친구든 어색한 친구든 할 것 없이 함께 손잡고 안아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따뜻하고 소중했다.

셋째 날, 닫는 예배에서 어노인팅 예식을 진행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이마에 기름을 발라 주셨다.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와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8:14)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받을 때 또 눈물이 났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면, 주님은 항상 나를 지켜 주시고 높은 곳에 올려 주실 거라고 굳게 믿게 되었다. 어디에 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너무나 즐겁고 은혜로웠던 3일간의 수련회가 끝이 났다.

하나님과 모두에게 성큼 다가간 ‘2박 3일’

항상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이번 수련회에서 많은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 가까워졌을 거라고 믿는다. 주님을 믿는 기쁨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신나게 뛰고 춤추며 찬양한 순간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앞으로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잊지 않고 평생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고 싶다. 이번 수련회에서 처음으로 느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로 가득 찬 경험’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수련회였다. 이 모든 것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다! **만남**



장세영
중등부 3학년



대학부

섬김·감사의 의미 깨달았죠

충남 보령군 하계 전도봉사

지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대학부 벗님들과 함께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농촌전도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작년, 벗님들이 신덕리에 봉사한 간증과 나눔을 듣고, 저도 그들과 같은 기쁨을 누리고 싶어 이번 농촌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봉사 활동을 앞두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마음을 다졌습니다. 25일 충남 보령에 있는 신덕교회로 향하며 시작된 모든 일정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3일간 봉사를 통해 받은 감동과 은혜를 공유하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신덕교회 목사님의 지휘 아래, 우리는 일손이 필요한 곳으로 흩어져 이동하며 이틀간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공간에서 봉사했습니다. 도심에서는 보기 드문 푸릇한 밭과 생기 넘치는 생명들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주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로 가득했습니다. 주로 일했던 콩밭에서는 다음 농사를 위해 그물을 끊어 콩지주대를 뽑아내며, 남은 줄기를 말아놓고 멀칭했던 비닐을 걷어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오랜 시간 작업하다 보니 모두가 체력의 한계를 느꼈고, 예정에 없던 발까지 작업하게 되어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의지하여 마지막 밭까지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봉사를 통해 주민들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저를 계속 움직이게 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날이 저물 때, 밭 주인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교회에 가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의 땀과 노력



신덕교회 목사님이 보내주신 마을주민의 문자

어제 우리밭에 천사가 왔다
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빙 돌렸고, 손을 뻗어 기쁨으로 축복송을 불러드렸습니다. 몸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벗님들의 신앙 나눔 시간

첫째 날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예배당에 모여 진행했던 나눔 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받은 섬김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섬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두 가지 질문에 관해 깊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영락교회를 다닌 시간과 지금 대학부 농촌봉사활동에 참여하기까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섬김을 받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힘들 때 신앙적인 고민을 기도로 함께 해주셨던 수많은 교역자분, 교회의 발길이 끊이지 않게 잡아주셨던 부모님과 교회 선생님, 오늘도 요리로 섬겨주신 식사팀까지. 누리고 받았던 섬김을 기억하니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제가 부끄러웁니다. 이제는 주님의 사랑과 이교심이 필요한 많은 이에게 나의 섬김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며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주께서 동행하셨던 3일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가 더위로 지칠 때쯤이면 시원한 바람과 그늘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배고플 때는 식사팀이 준비한 시원한 새참과 세 끼 식사로 힘을 얻었습니다. 소중한 벗님들과 함께 둥글게 모여 서로를 위해 기도했던 순간도 특별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의 봉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했던 기도가 이루어진 것 같아 무척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서든 우리와 함께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세상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농촌봉사활동에 다녀올 수 있게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3일간의 특별한 은혜를 언제까지든 기억하겠습니다! **만남**



방윤서
대학부 에스더마을



고등부

이번 역은 사랑역... 환승열차 탔죠



2023년의 반 이상이 지나고 여름 수련회 신청 기간이 점점 다가왔을 때, 삶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마음속에는 과거에 대한 후회, 현재에 대한 불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끊임없이 불안감을 불러일으켰고 희망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마치 마지막 희망처럼 여름수련회가 다가왔습니다. 여름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아 삶에서 반복되는 실수와 그로 인한 후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여름수련회 신청으로 이어졌고, 가슴속에는 수련회에 대한 작은 기대가 생겨났습니다.

다시 분주하게 시간이 지나 수련회의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집을 나서서 지하철을 타고 교회를 향해 가는 동

안 많은 것을 상상했습니다. 수련회에서 얻을 추억, 받을 은혜, 그리고 삶의 변화까지. 설레는 기분이 가득히 생겨났습니다. 여름 수련회는 시작부터 마음에 울림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버스에 탑승하기 전, 예전 초등부 시절 친구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을 되살려준 그 만남은 추억을 회상하는 마음과 다가올 수련회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품고 수련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수련회장에 도착하고, 식사 후 <여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인 '환승연애'의 의미와 우리가 수련회에서 가져야 할 마음, 받을 은혜에 관해 설교하신 이영호 목사님의 말씀은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싶다는 기대를 더욱 키웠고, 예정된 수련회 활동들에 대한 열정을 갖게 했습니다. 첫째 날의 조별 프로그램 '환

승열차'는 그 방식과 내용 모두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십자말풀이를 통해 자신이 속한 조를 확인하고 조원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열차 환승음악과 안내방송이 나오고 다음 활동 장소로 이동하는 방식은 마치 실제 열차 환승을 연상시켜 재미를 더했습니다. 둘째 날의 'X룸'과 '이번 역은 []입니다' 프로그램 역시 무척 즐거웠습니다. 'X룸'은 힐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휴식도 취하며 이야기꽃도 피울 수 있었던 시간으로, 자유롭게 밝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역은 []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학생회에서 준비한 재치 넘치는 게임들을 경험했습니다. 조원 모두가 협동하여 참여할 수 있는 게임들로 서로가 더욱 친해질 수 있었고 게임도 즐기며 유익하게 보냈습니다. 마지막은 '워터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앞마당에 설치된 커다란 수영장에서, 저마다 물총을 집어 들고 서로를 향해 사정없이 물을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도 잊고 물놀이에도 몰두하며 함께 어린 시절의 신바람을 즐겼던 것 같았습니다. 함께 물에 담그고 물을 뿌리며 워터슬라이드를 타니, 넘치는 즐거움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빠 때린 말씀... 모든 집착·죄악을 회개

다양한 활동이 끝나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밤의 저녁 집회는 어쩌면 수련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녁 집회를 시작하며 우리는 모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간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여 커다란 감동을 주었습니다. 설교에서도 그 감동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소울브릿지 교회의 반승환 목사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겪으신 수많은 좌절과 고난 속에서 경험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설교하며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해주셨고, 하나님

을 만나 변화되는 삶,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설교의 모든 말씀이 마치 한 사람을 향해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아무리 바꾸려 해도 변하지 않고 반복해오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지금까지 무감각하게 받아들인 모든 것에 대해 다시 고민했습니다. 세상에서 살며 집착했던 모든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이틀에 걸친 저녁 집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믿음의 의미를 뼈에 사무치도록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죄악과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들, 마음속에 접어두었던 오래된 생각들, 부끄러워 잊으려 했던 기억까지 전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이 불러일으킨 인생의 아픔을 고백했습니다.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힘든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현실에 대한 불만을 하나님께 원망한 것을 자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의 모습이 아닌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저를 어떻게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다짐했지만, 세상의 벽에 부딪혀 매번 좌절하고 세상에 휩쓸려 살던 이 작은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을 수없이 듣고 읽으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분을 원망하고 은혜를 잊었던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인지 물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듣고 읽으며 자랐지만 와닿지 않았던 하나



님의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의 골짜기로 걸어갈 때도 나를 붙들어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찬양과 성경책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 위대하심, 그런 것들을 드디어 가슴으로 느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죄책감과 불안감, 후회와 불신은 봄 햇살에 눈 녹듯 사라지고, 마침내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겠습니다”

7월 30일 수련회 마지막 날, <달는 예배>와 <어노인팅(anointing) 예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절대로 이 은혜가 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수련회의 주제인 ‘환승연애’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습니다. ‘세상과의 연애에서 하나님과 사랑으로’라는 수련회 주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구나’ 하고 말입니다.

세상과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달콤한 것들을 줍니다.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고, 이것들을 따르라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 수련회를 통해 그것들이 모두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

게 되었습니다. 또한 순간의 쾌락 뒤에 찾아오는 것은 공허함과 권태뿐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썩어 없어질 세상과의 짧은 연애가 아니라,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있으며 영원히 지속하시는 하나님과의 사랑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3년 고등부 여름수련회 ‘환승연애’는 하나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랑하던 것들을 좇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수련회에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그 사랑을 기뻐하며 세상에 전해야 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세상은 계속해서 유혹하고 사탄은 은혜를 무너뜨리려고 갖은 수작을 부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렸으니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힘쓰며 살아가겠습니다. **만남**



강현규
고등부 1학년



국제예배 ZERA

ZERA! 그 새로운 숲을 거닐며...

어린이영어예배 가족수련회

국제예배(International Worship in English·IWE, 부장 정천우 장로) 숲속에는 다양한 이들이 오가며 남긴 다채로운 흔적으로 가득 찼다. 한국을 찾은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 중 기독교인은 어느 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릴지,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할지, 비기독교인은 어느 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기 마련이다. 그러다가 어느덧 영락교회 내에 조성된 국제예배 숲을 발견하게 되면서 미소가 번지고 기대가 커진다. “내가 원하던 곳이 바로 여기야!”라고 환호를 지르며 국제예배 숲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한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토대 위에 영어라는 언어가 공통 매개로 구성된 국제예배 숲은 다양한 이를 맞이할 현대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외국인들 다채로운 흔적 가득한 ‘국제예배 숲’

총총 발걸음을 옮긴 후 국제예배 숲 입구에 다다르면, 아름다운 스테인드글라스로 장식된 벽과 함께 중앙에 자리 잡은 커다란 십자가가 은은한 조명 빛에 반사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온 이들을 감미롭게 반긴다. 주일을 맞이한 선교관, 오전 10시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발걸음을 재촉한 사람들에게는 전통적인 거룩한 예



최성은 전도사
국제예배

배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고, 오후 3시 30분에는 현대적 예배를 드리며 뜨거운 찬양과 열정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국제예배 숲은 이제 용광로가 되어 그곳에 발을 디딘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공간이 된다. 국제결혼으로 맺어진 부부, 대사관 직원들과 그 가족, 국내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 비즈니스인, 여행객, 해외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한국인 등 다양한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어 간다. 국제예배 숲에서는 정준희 목사(국제예배 담당)가 김운성 위임목사의 설교를 영어로 각색해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 영어로 새롭게 구현된 설교는 소그룹 모임의 주제가 되어 한경직목사기념관이라는 의미 있는 공간의 지하 식당에서 찾아오는 이들을 맞이한다. 코이노니아 친교 모임은 소그룹 학기 중에는 소그룹 모임 전에 제공되는데, 소그룹 방학 중에도 같은 장소에서 코이노니아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지구촌 아이들 영어로 어울리는 작은 숲 ZERA

이처럼 국제적 특성, 그리고 다양성과 다문화성이 어우러진 국제예배 숲 속에는 밝고 생기 넘치는 또 하나의 작은 마을이 있다. 그곳은 바로 “제라 어린이영어예배(ZERA Kids' Worship)”이다. “제라(ZERA)”는 히브리어 נצר[제라]에서 따온 용어로, ‘씨앗(seed),’ ‘자손(offspring),’ ‘후손(descendants)’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따라서 다음세대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 제라 어린이영어예배는 외국인 학생이나 해외 영아권 거주 경험이 있는 한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매 주일 아침 10시가 되면 봉사관 504호는 아이들을 위한 색다른 공간으로 변모한다. 약 20명의 어린이와 6명의 교사가 웅기종기 모여 함께 예배하며 다양한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작은 마을에서 제라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풍부해지고 값진 영적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 소망을 담아 올해 기획한 특별 프로그램이 <제라 가족수련회>

잠비아, Machina Felistus 어머니



제라 가족수련회는 어린이와 부모가 신앙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는 많은 아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함께한 모든 참가자는 영적으로 회복되고 자존감이 향상되며 관계 형성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함께 누리며 깊은 풍요와 영적 평안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ZERA Summer Camp provided an opportunity for children and parents to renew their faith and form meaningful relationships. The camp helped a lot of children, including my own, to draw closer to God. This summer camp also helped me to grow spiritually, boost my self-esteem, and enjoy building new relationships. I am glad that my daughter and I had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ZERA Summer Camp where we could enjoy the beauty of nature and experience the deep richness and spiritual peace with others at Youngnak IWE.



이다. 이 가족수련회는 7월 7일(금) 저녁부터 7월 8일(토) 오후까지 영락수련원에서 진행되었다. 아름다운 자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인 영락수련원은 참여한 모든 이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했다. 학생 19명, 부모 16명, 교사 6명, 교역자 3명, 임원 5명 등 총 49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끽하며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이 글을 통해 잠비아에서 온 어머니 Felistus와 인도네시아에서 와서 의과학(Medical Science) 석·박사통합 과정을 밟고 있는 제라 교사 Keren이 나눈 소감을 공유하며 제라 숲 이야기를 마치고자 한다. Felistus와 Keren은 제라 마을의 값지기도 소중한 일원이면서 동시에 리더의 역할을 맡은 분들이다.



인도네시아, Mantik Keren Esther Kristina 교사



제라 가족수련회는 교사인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선생님, 부모, 아이들 사이에 형성되는 강한 유대감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었어요. 이 가족수련회는 예수님의 교훈을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소개하며 흥미로운 활동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제라 아이들은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며 친절, 공감, 이해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제라 가족수련회는 한국의 뜨거운 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피할 수 있는 상쾌한 탈출구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환경의 가치를 보여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새로운 우정에 관해 대화하며, 신앙을 깊이 나누면서 캠프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 잊지 못할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다음에 있을 제라 가족수련회에 대한 기대를 감출 수 없는 마음입니다.

ZERA Summer Camp was an absolute delight for me as a new teacher. The strong bonds that develop between the teachers, parents, and kids are truly heartwarming. What set ZERA Summer Camp apart was its ingenious approach to introducing the teachings of Jesus through the activities. The camp managed to seamlessly teach valuable life lessons and Christian values into the moments of fun, making it an enriching experience for everyone. The kids did not just have a fun time but also learned the importance of kindness, empathy, and understanding.

The camp not only offered a refreshing escape from the scorching Korean summer heat, but it also introduced the kids to the values of the environment that God created. Laughter and serene moments of reflection could be seen at ZERA Summer Camp where the pastors and teachers ensured that each child, as well as the parents, experienced a holistic and spiritually uplifting summer. It was great to see all of the participants return from the camp with smiles on their faces, stories of new friendships, and a deeper connection to their faith. I can hardly contain my anticipation for the next ZERA Summer Camp, where everyone can reunite again for another unforgettable journey of growth and faith in Christ. **만남**

늘어가는 교회 변화 시급 MZ세대에 ‘실패할 기회’ 주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국가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가운데 교회의 미래자원인 주일학교 학생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머지않아 다가올 한국 교회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아무런 대책 없이 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면, 나중에 후속 세대로부터 “과연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는 원망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비전과 꿈을 품은 건강한 교회를 다음세대에 게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다음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다음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급속하게 변하는 세상을 민감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과 아울러 다음세대인 청년이 품어야 할 사명을 그들의 시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과 준비에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칫 머뭇거리다가는 어느 순간, 성도의 절반 이상이 노년층이 되어 경제적 활동이 없는 교회, 은퇴자만 모이는 미래 없는 교회, 생동감 없는 교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감히 생각조차 하기 싫은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 신화는 사라지고 내리막길 상황에서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감소하고 있는 현재,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천주교와 불교에 이어 3위라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3위마저도 내어줄 수 있는 상황이 곧 닥칠 것이라는 한탄 섞인 전망은 미래에 대해 암울함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청년들 떠나가고 활력 급속하게 떨어져

젊은이들이 교회를 멀리하거나 떠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지향하는 바를 교회가 충족해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기성세대의 잠재적 편견으로 인해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듯한 경험, 그들의 논리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 모습 등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들 나름대로 기성세대의 사고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로에 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속의 단절된 모습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김동욱 은퇴장로
서초교구

MZ세대를 동역자로 인정하는데서 출발

기성세대는 스마트폰을 피부나 세포처럼 느끼는 MZ세대 청년들의 태도를 이해하고 인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생각하는 방식, 일하는 방법, 놀이의 형태 등에 있어서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이나 로봇과의 교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성장한 세대로 팀보다는 개인주의가 강한 특성이 있으므로, 기성세대는 그들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말이 안 통한다. 버릇이 없다. 예절을 모른다. 저박에 모른다. 하는 소리를 합니다.

이것은 MZ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문화적 충돌에서 나오는 아우성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늙어간다고 해서 교회도 같이 늙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미 사회에서 인정받고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며 중추 세력이 된 그들이기에 미래는 물론 현재의 리더로서 평가해야 하며, 미래를 주도해 나갈 자원으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엄연한 동역자로 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청년들은 가상현실에 익숙하며, 대면적인 만남보다 온라인 만남을 선호하고 정보 대부분을 온라인에서 얻는 등,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혁신이 불러올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변화를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적용해가야 합니다.

투자·지원 늘려 온전한 리더로 성장 도와야

청년들은 교회의 미래 자원이기도 하지만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리더로 인정받고 준비되는 중에 경험할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해 온전한 지도자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과 평등을 중요 가치로 여기는 청년들은 공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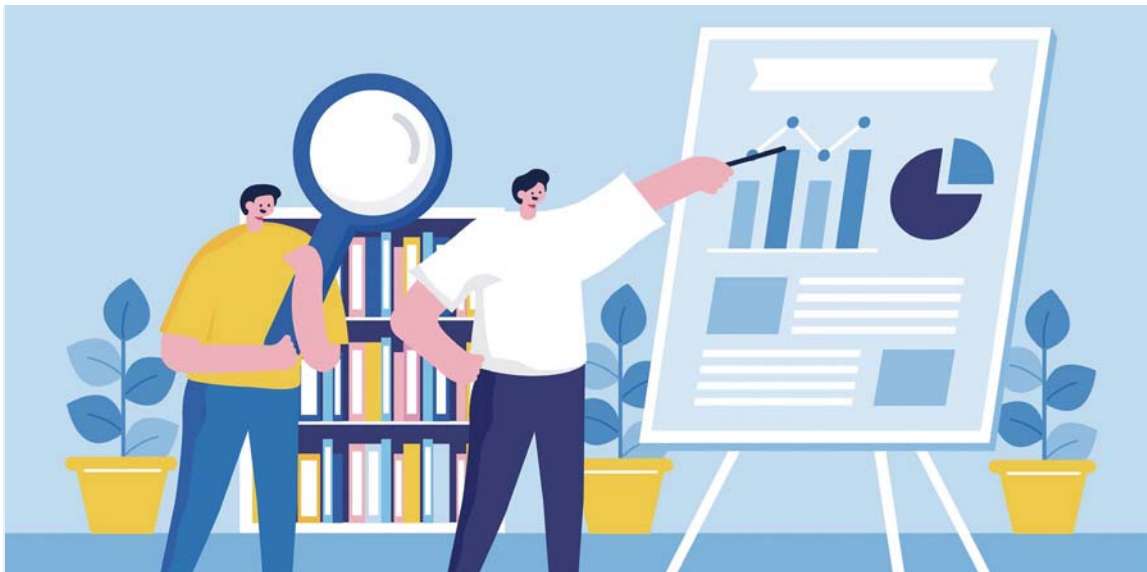
따져 묻습니다. 공정이 그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곳이 공정이란 키워드에서 벗어나면 회의를 느껴 소속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적으로 경직된 모습으로 인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준비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꿈·비전 있는 능동적인 청년부로...

교육부로부터 청년부가 독립해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청년들이 모든 사역을 기획하고 수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재정도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청년부로서 헌금(일반, 십일조, 감사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성사된다면, 청년들의 참여가 더욱더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미 이러한 체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부 교회에서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안주하여 변화를 두려워하는 태도를 속히 떨쳐버립시다.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이기에 상대적으로 더 여유롭게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미래가 없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아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현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다면, 교회는 희망도 미래도 사라져 버립니다. 교회가 세상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한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서 논쟁과 갈등으로 시간만 허비하게 된다면, 예상되는 암울함이 현실로 다가올까 염려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변해야 합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역동적인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겠습니다. **만남**



AI·빅데이터와 융합한 경영학 전공자들 모셔가는 곳 줄었다

영락교회는 부모님 덕분에 어릴 적에 세례받은 곳입니다. 유치부 시절에는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기도 하며 성장했고 주일학교와 입교를 거쳐 결혼식도 영락교회에서 올렸습니다. 지금은 저희 가족 3대가 예배드리는 마음의 고향이자 안식처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20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저에게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경영학과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졸업 후 진로는 무엇이 있는가”, “경제학과 경영학의 차이는 무엇인가”, “문과 중 수능 점수가 가장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나”, “미래 전망은 어떤가” 등입니다. 평소에는 수식과 이론이 포함된 학술 논문을 쓰고 있지만, 오늘 『만남』 기고에서는 중·고등학생과 부모님, 그리고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문 김사
서초교구
홍보출판부
연세대 경영대학 학장

경영학이란?

‘경영학’은 기업, 정부, 기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원리와 개념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이 학문을 공부하면 실제 경영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지식과 도구

표1 경영학 세부 전공에서 배우는 내용

마케팅	마케팅 전략, 소비자 행동, 시장 조사, 브랜딩 등
재무	기업 자본 구조, 투자 및 자금 조달, 자금 운용, 이익 분석 등
회계	회계 정보의 수집, 분석, 보고 및 관리, 감사 등
인사/조직관리	인재 채용, 교육 및 개발, 보상, 성과 관리 등 인적 자원 관리 등
국제경영	국제 시장 조사, 글로벌 마케팅, 국제 금융, 국제 법률 및 규제, 국제 무역, 다국적 기업 운영 등
경영과학	데이터 분석, 수학/통계 모델링, 예측 기법, 의사결정론, 시뮬레이션 등
생산관리	생산 및 서비스 프로세스, 전략적 자원 관리, 품질 관리, 공급망 관리 등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네트워크 관리, 정보 보안 등

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조직의 목표 설정, 의사 결정, 리더십 발휘, 조직 구조 이해에 관한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경영학 내의 세부 전공으로는 마케팅, 재무, 회계, 인사/조직관리, 국제경영, 경영과학, 생산관리, 정보시스템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들 세부 전공을 통해 특정 분야의 관리와 전략을 상세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표1 참조).

유명 기업가 및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1909~2005)는 경영학에서 유명한 교수로, 다양한 이론과 개념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장기적인 경영전략과 조직 문제를 연구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의 말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create it.)”입니다. 즉, 기업이나 조직이 미래를 이끄는 리더가 되기 위해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헨리 포드(1863~1947)는 현대 산업과 경영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물로, 포드 자동차를 설립하여 대량



생산 시 효율성을 강조하고, 경영 관리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자동차를 대중적으로 생산하여 판매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자동차가 매우 비쌌지만, 헨리 포드의 혁신적인 생산 방식과 대량생산 기술을 통해 가격을 낮추어 많은 사람이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품 제작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작업자들이 특정 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생산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최근에는 유명한 기업가와 경영자가 각자의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전을 실현하며, 성공적인 기업을 설립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애플), 마크 저커버그(메타, 전 페이스북), 제프 베조스(아마존), 일론 머스크(테슬라), 워런 버핏(버크셔 해서웨이)의 유명한 성공 사례들은 경영학에서 사례연구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경영학의 최신 트렌드

전통적인 경영학 전공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역사는 짧지만, AI와 빅데이터 시대에 점점 각광받는 전공들이 있습니다. ‘경영과학’, ‘데이터분석’,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가 그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계량적인 (quantitative) 분

야에 속하며, 기업 내부 및 외부에서 생성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 해석하여 중요한 경영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예측 분석, 시각화 기술 등을 사용하여 기업의 데이터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실시간으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생성하여 경영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이 분야 전공자들은 수학적 모형과 통계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기업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전 기차 생산을 계획할 때, '경영과학' 전공자는 수학적 모형과 최적화 기법을 활용하여 최상의 생산 계획을 만들어냅니다. 그다음으로 '데이터분석' 및 '비즈니스 인텔리

전스' 전공자가 해당 계획의 실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데이터를 분석하여 추가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세계적 대기업인에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그 활용사례는 다양합니다. <표2>는 일부 예시입니다.

데이터분석/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전공의 전망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데이터분석,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경영과학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를 채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이러한 수요에 맞춰 학부 및 대학원에서 관련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공들은 미국

표2 세계적 기업에 적용된 '경영과학', '데이터분석',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전공의 사례

	사용자 검색 및 광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광고 클릭률 예측, 검색 알고리즘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 검색 엔진 최적화, 광고 효율화, 데이터 마이닝, 인공지능 및 기계 학습 등에서 기업 업무 프로세스 최적화
	사용자 시청 패턴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원하는 콘텐츠를 예측하여 제작에 반영 콘텐츠 제작과 유통 과정에서 데이터 모델링과 최적화 기법을 활용하여 예산 및 자원 할당, 품질 관리 등 수행
	운전자와 승객 데이터를 분석하여 운송 수요 예측, 가격의 동적 조정, 운송 경로 최적화 수행 운송 네트워크 최적화, 운송 계획 및 스케줄링, 운송 비용 관리 등에서 데이터 모델링과 최적화 기법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송 서비스 제공
	고객 예약 및 이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격의 동적 조정, 숙소 추천 알고리즘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 수요 예측, 예약 관리, 호스트 리소스 최적화 등에서 데이터 모델링과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여 효율적인 호스팅 서비스 제공
	사용자 프로필 및 직무 데이터를 분석하여 채용 추천, 인재 예측 모델 개발, 인사 관리 및 조직 분석에 활용 조직 성과 분석, 인력 관리, 채용 및 트레이닝 전략 개발에서 데이터 모델링과 최적화 기법을 활용하여 기업 인력 관리 지원

구글, 애플, MS 등 데이터 인재 채용 활발
데이터분석·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전공 각광
수학·통계 관심 있는 청소년 도전 '강추'



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분석 및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경영과학 전공자들의 대졸 초봉은 다른 전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미국에서 모든 산업의 평균 대졸 초봉은 약 6만 달러인 반면, 데이터 분석가의 평균 연봉은 약 11만 달러, 경영과학자의 평균 연봉은 약 9만 달러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50% 이상의 시가총액을 차지하여 1등이며,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비중은 2%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국에서 세계적 기업들이 움직인 후 몇 년이 지나면 우리나라가 따라가는 트렌드가 있으니,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여 준비하면 좋을 것입니다.

수학/통계의 중요성

세계 유명 기업들이 경영과학, 데이터분석,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등의 경영 기법을 적용하여 성공한 사례를 경영학 수업에서 가르칠 때, 학생들은 흥미롭고 신기해합니다. 하지만, 수학과 통계 관련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려워하고, 못 따라오는 학생들도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뿐 아니라,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도 수학을 오랜 기간 선행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학생들은 수학

을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경향이 있어서 흥미를 잃고 있지요. 하지만 본인들이 배우는 미분, 적분, 확률, 통계 등이 세계적인 기업의 경영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재미있게 설명해주고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면, 왜 수학과 통계를 공부해야 하는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 초입에 진입하는 요즘, 경영학의 최신 트렌드와 수학, 통계의 중요성을 간략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전공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경영학을 공부하는 것은 기업, 정부, 기관 등 다양한 조직의 리더로서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리더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주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입니다. 교육자로서의 남은 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지혜롭고 올바른 가르침을 전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남**



J a p a n

호 산 나 찬 양 대



부족함 채워주신 하나님 큰 은혜

코로나로 인한 4년의 공백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 제38회 호산나찬양대 일본 순회연주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에도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아낌없는 도움 덕분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통해 호산나 지휘자 선생님, 반주자 선생님, 박용준 목사님, 지도위원분들, 김준한 집사님, 김태현 학생, 모든 대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순회연주 기간에는 총무로서의 역할로 분주하여, 은혜를 느끼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순회연주를 가기 전에 지휘자 선생님이 “순회연주를 선교목적으로 가기는 하지만 너희가 가서 무슨 큰 은혜를 입히겠느냐, 자신의 기도 제목에 응답 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라”라며 강조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회연주를 위해 나가는 것은 선

교 목적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라”라는 중요한 말씀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무사히 다녀와야지’라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순회연주 기간 내내 피곤함과 능력 부족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제가 느낀 것은 ‘부족함’이었습니다. 리더로서의 부족함, 신앙인으로서의 부족함, 찬양과 간구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이틀날 연주에까지 어려움이 지속됐습니다. 마지막 연주 두 번을 남긴 2일째 밤이 되어야 ‘부족함’이 나의 기도 제목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숙소에 들어가서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 아실 테니 채워주세요. 저로 인해 채울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마지막 날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여유롭게 연주와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었고, 찬양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연주는 교회 천장에 십자가 모양의 창문이 있는 요도바시교회에서 했는데, 연주가 끝을 향하여 마지막 곡을 노래할 무렵, 천장의 십자가 창문에서 내려오는 빛을 보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찬양은 '내가 주인 삼은'과 '주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해,
변함없는 나의 모든 것 주의 은혜’**

순회연주를 준비하는 기간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총무로서 할 일도 많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순회연주 때 하나님께 간구해야 했던

일본 순회연주 중 떠오른 내 기도제목
부족함 아시는 주님이 채워주소서 간구
잠시 잊고 있던 찬양의 기쁨 깨달아
내가 즐거우니 선교연주 효과도 더 커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쁨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거워서 찬양대를 섬기고 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기쁨을 대원들에게도 전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들로 인해 잠시 이 목표를 잊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찬양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선교의 결과가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우리 호산나찬양대에서 작사·작곡·번역한 '주의 은혜'라는 곡의 악보를 보내달라는 성도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부인하던 스태프가 더욱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연주 내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하나님을 메마르게 찬양하던 사람들도 순회연주 경험을 통해 축복하게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주인이시며 나와 함께 동행해주시는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순회공연에서 연주했던 곡들은 모두 나의 고백이 되었음을 확실하게 간증합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나의 주님을 다 같이 기쁘게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 **만남**



박태상 성도
마포·영등포교구
호산나찬양대 총무



C a m b o d i a

제 2 남 선 교 회



하나님께서 다 하신 캄보디아 3박 5일

매년 해외단기선교를 다녀왔던 제2남선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3년간 멈춰 있던 선교를 작년 12월에 다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 있는 포이펙트시의 가장 열악한 빈민촌으로, 카지노가 인접한 지역입니다. 주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역을 향해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5월의 답사를 통해 캄보디아 포이펙트 땅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D-40일, 24명의 2남선교회(지도목사 이후림) 팀원들의 40일간 릴레이 기도와 사도행전 묵상, 6주간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포이펙트에서 행하실 모든 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8월 11일(금)부터 15일(화)까지, 캄보디아 포이펙트에 있는 <선교 비전센터>에서 “내 어린양을 먹

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요한복음 21:15~17) 주제로 이기원 선교사(영락교회 협동선교사)의 사역을 공유했습니다. 이 기간에 지하수 정수 필터 파이프라인 설치, 생명의 쌀(5톤) 나눔, 주방 설비(튀김기, 온수통, 제빵 오븐기) 기증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외에도 예배당의 예배 의자(100개) 기증, 전교생에게 교복과 학용품 전달, 이용(삼푸) 사역 진행, 사진 및 안경 사역, 시청각 시설 기증, 가정 방문을 통한 복음전도와 선물 전달, 복음 팔찌, 어린이 선물, 다양한 문화 행사 등으로 현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사도행전 20:35 상반절)

“내 양을 치라” 빈민촌으로 불러주셔
 항공·날씨·후원자 등 모든 걸 예비
 24명 팀원들 각자의 달란트로 헌신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계획된 항공편을 결항시키면서 일정보다 비행기 환승 대기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였고, 게다가 더 좋은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 일정 기간은 지역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우기임에도 불구하고 맑은 날씨를 허락하셨으며, 가정에서 복음전도할 때는 소나기가 내리다가 사역을 마치고 이동할 때는 비를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해외선교 중에 깨끗한 물이 부족하여 선교지에 우물 파주기 사역을 하는데, 올해의 선교지는 우물은 많으나 수질이 좋지 않은 탓에 정수필터 파이프배관 설치를 계획했습니다. 우물사역보다 몇 곱절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염려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동역자(중구·용산교구와 회원 목적헌금)를 세워 재원을 충당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정수필터 파이프배관 설치를 통해 매달 24회 이상 길거리에서 빵 500개와 생수 500개를 나누어주는 빵나눔(빵퍼) 사역뿐 아니라 생수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쌀 나눔 사역에서는 빈곤으로 어려운 포이팻시 주민 500가정에 10kg씩의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쌀나눔 초청 행사에 모인 수많은 사람과 팀원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천

국 잔치였습니다. 가정 복음전도 사역 때는 30여 명 이상 모이는 부흥회 같은 복음전도와 영접기도를 드렸습니다. 전도사역으로 진행한 사진, 이용(샴푸), 풍선, 놀이용품 등은 모두 혼연일치하여 각자의 달란트로 헌신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은혜로웠습니다.

이번 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2살 류은유 가족, 이용(샴푸) 사역 팀장 김갑분 집사님을 포함한 24명의 단원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포이팻시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더위도 잊은 3박 5일의 선교 기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었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주신 동역자와 24명의 팀원을 축복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남**



전태성 안수집사
 인천교구
 제2남선교회 회장

해외선교 첫 경험 은혜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동역자의 기도와 성원에 힘입어 캄보디아 해외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처음으로 참여한 해외선교봉사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여정이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심을 목격하며 주님의 말씀과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단원들과 한마음으로 봉사하며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나게 하신 캄보디아 주민에게 선교 사역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갑니다. 지금도 해맑은 어린이들의 눈동자와 현지인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복음이 널리 퍼지고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떠나기 전에 매주 모여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폭염과 태풍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며, 발걸음을 지켜 주시고 함께하셨습니다. 은혜로 시작된 모든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어, 순조롭게 마칠 수 있어서 감사와 감격과 잔잔한 은혜에 오직 기쁜 마음뿐입니다.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써 선교사님이 실천하신 열정과 헌신, 그리고 사랑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하셔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하신 모든 분의 수고, 기도와 사랑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은혜가 일상과 신앙생활에도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남**



김호훈 집사
관악·동작·금천교구



“

현지 어린이들 눈망을 지금도 선해
섬김 실천하는 선교사 보며 큰 감동

”



I s r a e l

중 등 부 비 전 트 립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십자가의 길’에서 들린 주 음성

저는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중등부 비전트립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행 기간의 이스라엘은 한여름이라 가장 더울 때였는데, 예상만큼 엄청 무더운 날씨는 아니었습니다. 성지 안내를 해주신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가 경험한 날씨는 사실상 초겨울에 가까운 날씨여서, 햇볕은 뜨거웠지만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기온도 낮은 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전트립에서 많이 경

험한 하나님의 도움 중에, 갈릴리에서 드렸던 선상 예배, 예수님의 세례 터,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느꼈던 것들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주일, 갈릴리 호수에서 선상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혹시나 테이블에 있는 유리병이 날아갈까 걱정도 되고 조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다 보니 이런 제 마음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말씀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파도도 심하게 쳐서 곧 죽겠다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갔는

바람 불던 갈릴리 호수 선상에배
예수님 세례 받은 곳에서 정결의식...
지나친 모든 곳에서 하나님 함께함 느껴



데 예수님은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라고 말씀드리니, 예수님께서서는 “어째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며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제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갈릴리 호수의 바람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으며, 설교 내용을 생각하니 예수님께서 바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에서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시차 적응 때문에 여러 날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서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세례받으셨던 그 물에 언제 또 몸을 담가볼 수 있을까 싶어서 오전에 목사님께 기도받고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사실 예식이 진행될 때는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았지만, 물 밖으로 나와 선생님들의 기도를 받고 다른 친구들을 기다리며 혼자서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마치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눈물이 났고 큰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죄 많은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다 힘들어 손 짚으셨던 그 벽에 제 손을 포개어 기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눕혀지신 그 돌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고작 나 때문에 고난 받으신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길은 너무 더러웠고 상인들의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대체 이 길을 어떻게 걸으셨을까? 그 몸으로 어떻게 견디셨을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조용히 묵상하며 걷다 보니 예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요단강에서 정결예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골고다 언덕으로 추정되는 곳에 세워진 <거룩한무덤성당>

님의 마음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이 길을 걸었다. 너를 정말로 사랑해서 이 더럽고 시끄럽고 조롱 섞인 길과 찢겨 아픈 몸을 견뎠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이곳에서 못 박혀 죽었다.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감으면 예수님과 단둘이서만 그 길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골고다 언덕과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곳, 그리고 무덤은 너무 사실적이라 진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서 예수님께 기도드리며 오로지 주님만 따를 것을 고백하며 다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순례하며 계속 느낀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배 장소는 물론이고, 그냥 지나치는 모든 곳마다 함께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바람으로, 구름으로, 갈릴리 호수의 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를 이곳

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했던 모든 장소가 은혜였고 영광이었습니다. 저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곳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삶”이라는 비전트립의 주제와 같이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언제나 함께하셔서 이번 성지순례의 모든 여정 중에 은혜 주시고 안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만남**



최지유
중등부 3학년



Mongolia

고 등 부 비 전 트 립



몽골에 전한 예수님 사랑 무언극으로도 통하던데요

올해 고등부에서는 8주 동안 진행한 ‘다시 봄’ 프로그램의 제자훈련을 마치고 몽골로 해외 선교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몽골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주제 말씀을 가지고 오랜 기간 다 같이 기도하며 준비하여, 8월 4일 금요일부터 8월 10일 수요일까지 5박 6일의 은혜로운 비전트립을 경험했습니다.

고3인 저는 학창 시절 처음이자 마지막인 해외 선교

활동이기에 더욱 큰 기대와 은혜로운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학업과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시기여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다양한 사역을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전체 워십, 태권무, 무언극 등의 다양한 활동 중에, 저는 무언극을 중점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무언극은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받는 연약한 아이를 구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사탄

역할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호흡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열심히 연습에 임했습니다. 몽골 현지의 〈믿음의 궁전 교회〉와 〈복된 교회〉의 성도들, 마을 주민들 앞에서 각자의 역할에 이입하여 마음을 다해 열연하며, 하나님께 연극을 성공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 성취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언극을 통해 몽골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쉽게 전달할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다음으로 교회 시설을 보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붕 페인트칠과 벽화 그리기 작업을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도착해 보니 지붕들의 아랫부분이 많이 녹슬어 빨갛게 변질해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손으로 만든 나무 사다리에 올라가 지붕을 하나하나 칠했습니다. 이틀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 멀리 떨어진 도로에서도 지붕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함께 이뤄낸 뿌듯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어린이 사역도 진행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온 많은 어린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바람개비와 풍선을 만들어주고, 몽골의 넓은 초원에서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피곤한 주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힘을 내어 모든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의 마음으로 돌아가 몽골 아이들과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호전도 사역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몽골 사람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영리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한 뒤, 한 명도 빠짐없이 조별로 나누어 한 번 이상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원래 전도하려던 분이 듣기를 거절하시고 나가셔서 그냥 기도만 하려 했으나, 바로 다른 친구분이 들어오셔서 그분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전도 대상으로부터 앞으로 교회에 나가겠다는 확답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6일간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직접 경험하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몽골의 광활한 초원과 하늘,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고, 몽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함께 경험한 고등부 친구들과 오랜 기간 준비해주신 선생님들, 총괄하신 목사님과 선교사님, 장로님, 매 끼니를 준비해주신 권사님들, 그리고 고등부 구성원들의 후원과 기도가 함께 이룬 비전트립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친구가 이런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노준영
고등부 3학년



영락 난타 홀로서기 두드리니 열렸습니다

G.Cross 지크로스

당시 나는 문화선교사역을 위해 기도 중이었고, 교회에 도입 가능한 오프닝 공연으로 난타, 컵타 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컵타의 전문가와 통화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청년이었다.

그에게 영락교회에서 직접 가르쳐줄 수 있겠냐고 간곡히 부탁하여 영락교회 CCM난타 G.CROSS가 탄생했다. CCM난타 만의 기술, 찬양, 퍼포먼스를 배우고 익히며 열심을 냈지만, 점점 어려워져서 1년 만에 팀은 해체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시작했는데 그만둘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그 청년을 따라다니며

선교부 문화선교팀 CCM난타 G.CROSS(지크로스)는 7년 전 한 청년과의 만남을 계기로 탄생했다. 경기도 소재 교회에서 열린 심재수 장로의 간증집회에 동행했는데, 집회가 끝난 후 담임목사님께서 이 훌륭한 청년을 자랑스러운 교회 구성원으로 소개해주셨다. 이 청년은 CCM난타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때는 교회 절기에 전국 수강자가 모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배워서 교회 안으로 전수하는 역할을 했다.

2021년, 청년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최선을 다했지만 손가락에 이상이 생겨 더 이상 스틱을 잡을 수 없게 되었다.

스틱과 함께한 7년...단원 7명으로 늘어

영락교회에 씨를 뿌려서 지크로스가 자라고 있음에 감사하다.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의 기도와 나의 간절함을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몇 년의 시간을 허락하셨다.

7년째 되는 올해, 단원은 총 7명으로 모두 아마추어이다. 직장을 다니게 된 나는 토요일에 소강당에서 1~2주에 한 번씩 수업을 진행하고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이후에는 단원들이 서로 도우며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난타 연습은 집에서 노력하여 손에 익혀야만 했다. 연습용 도구로 처음에는 일회용 커피믹스를 사용했는데, 커피믹스가 터져서 지금은 볼펜이나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하고 있다.

난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는 사명 없이 문화로만 접근하면 지속하기 힘들다. 전적으로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명이 없어도 힘들다. 지금의 단원들의 기도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노력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아마추어로서 한 작품 한 작품 익힐 때마다 놀랍다. 우리는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임을 잘 알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계속해서 연습할 수밖에 없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있다. 그래서 지크로스는 염려하지 않는다.

다시 시작하는 지크로스

2023년, 코로나 후유증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다시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세상은 볼 것이고 알게 될 것이다. 아마추어로서 이 정도면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연습을 했는지를... 더구나 지크로스의 탄생 과정을 알게 되면 그들 안의 기쁨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를...

문화로 사역할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 전, 극동방송국·외국인협회·외국인노동자·군부대·요양원·경로원 등 다양한 사역지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제, 코로나 후유증에서 벗어나 위로와 사랑을 전하러 가기 위해 서서히 일어서고 있다. 군부대와 교도소 등에도 갈 수 있도록 마음에 품고 기도 중이다.

찬양·전도 사명 없이 지속하기 힘들어 두드림 은혜 선사할 무대 맹연습 중

그 청년은, 후배 양성을 위한 사명으로, 손가락의 힘이 다하기까지 CCM난타를 전수했다. 작품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며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그는, 공연 작품이 끝날 때 방에서 혼자 소리 내어 울곤 했다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독이는 손길과 위로를 느끼며 다음 작품을 구상한다고 했다.

그 청년이 우리 영락교회에 선물로 준 난타팀은 선교가 목적이며 취미활동이 아니다. 그래서 단원의 가입조건은 열심히 배우고 연습한 후 선교지에서 사역할 것을 조건으로 받고 있다. 난타는 군무다. 이번 11월, 3년만에 기초반을 개설한다. 그래서 영락교회 난타 선배가 은퇴하여 평생대학을 가면 그 청년처럼 사명을 가진 후배가 빈자리를 채워주길 믿고 기도하고 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7-8)

G.CROSS는 GOD(하나님)+CROSS(십자가)의 의미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대로 살기 위한 단명이다. **만남**



윤일영 권사
중구·용산교구
지크로스 단장

미생에서 완생으로

광야에 돌 놓인다 해도
주님의 인도 믿습니다



박화목 전도사
안양·수원교구
사회봉사부

미생이란 용어는 바둑에서 집이나 대마(大馬)가 완전하게 살아 있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반면, 완생은 미생의 반대말로 집이나 돌이 완전히 살아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고교 때 만난 하나님

어릴 적 교회생활이 재미있고, 찬양도 좋아했던 저는 막연하게 목사님이 되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진로를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시절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장신대 학부에 입학했습니다. 밤 10시 전에는 반드시 집에 들어와야 한다는 아버지의 율타리를 벗어나 친구들과 자유롭게 지낼 수 있어서 어쩌나 재밌던지요. 하나님께 드린 고백은 다 잊은 채 놀기에 힘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니 아주 큰 회의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러려고 서울에 왔나...’ 시간을 허투루 보냈던 지난날을 후회하며 2012년 12월 입대를 결정했습니다. 학교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2학기 기말고사를 끝내고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께 인사드린 다음 날 도피하듯이 입대했습니다.

후방의 한 경계부대로 자대 배치받았는데, 저를 데리러 온 중대 선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산을 가리키며) 저기 산이 보이지? 2000번은 타야 집에 간다” 꼭대기가 보이지 않는 산을 보며 그렇게 말했던 선임이 미웠습니다. 알고 보니 넓은 부지를 자랑하며, GOP와 비슷한 근무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계부대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정신차리기 위해 군대에 왔으니 열심히 생활했고 잘 적응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밤 12시에 나가 아침 8시에 복귀하는 근무일에는 아침을 먹고 정오까지 오침합니다. 이 근무가 3교대로 돌아가는데, 근무가 토요일이기라도 하면 주일 아침에 잠을 자지 않고 교회에 가야 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잠을 자지 않고 종교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방황... 꽃기듯 입대... 부끄러운 목회자 후보생

어느 날부터 교회에 가기보다는 오침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근무가 없는 날도 주일성수를 못 했습니다. 참 부끄럽고 부족한 목회자 후보생입니다. 그렇게 병사 생활을 마치고 전문하사로 6개월을 더 복무했습니다. 전역을 앞둔 어느 날, 토요일에 퇴근했는데 이상하게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날따라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며 관사 옆에 있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고요한 그 시간, 장의자에 앉았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아 가만히 앉아있는데 지나간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동안의 군 생활을 한 장면씩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지나간 그 장면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굵이굵이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많이 그리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돌아가면 그 자리에 계신다는 생각에 등을 돌리고 멀찌감치 떨어져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도 될까요?” 저의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제대 무렵 다시 만난 하나님 “두팔 벌려 안아주셨죠”

전역하고 학교에 복학했습니다. 어느 교회로 갈지 고민하던 중 친구의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개척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약 4년 동안 신앙 훈련을 했습니다. 기도의 양과 질을 채우는 훈련, 말씀 묵상 훈련, 전도 훈련, 생활고 훈련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먹

이시고 단련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학부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다니는 동안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고 신광교회 아동부 사역으로 목회의 걸음마를 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락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또 다른 방면으로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안양 수원교구 성도 양무리를 교구 목사님께서 잘 양육하실 수 있도록 목양과 행정으로 돕는 훈련, 사회봉사부 사역을 통해 무리 중에 소외된 성도들을 찾고 돌보는 훈련, 금요 찬양 사역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떤 저에게 여러가지 목회의 경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많이 부족한 저를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많은 사역의 기회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지나온 삶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굵이굵이가 있습니다. 바둑에서 돌이 하나하나 놓일 때 대마(大馬)를 만들어가고 완생으로 이끌어가는 계획이 바둑을 두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있습니다. 이처럼 돌을 놓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펼쳐집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으며, 시간이 지나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대마(大馬)의 완성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돌이 놓이든지 우리의 앞날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이 놓이는 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님이 거기 계시기에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미생에서 완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만남**



위·대장 내시경, 40세 이후엔 필수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 질환인 암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발생 빈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노화와 관련된 주요 질환인 암은 세포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그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암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암은 주변의 정상 조직에 침범하며 결국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다. 발생률이 높은 암과 사망률이 높은 암은 다를 수 있다. 사망률이 높은 암은 대표적으로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 순이다. 반면 암 발병률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에서 위암, 대장암, 갑상샘암 순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건강검진과도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건강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위암, 대장암의 발생률이 늘었지만,

조기 치료 및 예방 방법이 있으므로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위내시경이 보편화되면서 위암의 발생률이 실제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암 검진 사업에서는 40세 이상 성인의 경우 2년마다 위내시경을 권고하고 있다. 위암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 주요 위험 인자로는 식품첨가물, 염장식품, 가공육류, 훈제식품에서 발생하는 질산염화합물, 고염식품, 탄 음식이 있다. 또한 술, 담배, 가족력,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¹ 소견,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감염 등도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위암은 증상과 진찰만으로는 진단

1 장상피화생: 위 점막에 염증 발생 후 회복될 때 장의 점막(상피)처럼 변한 것

하기 어렵고, 위내시경으로 직접 병변을 확인 후 조직검사를 통해 최종 진단할 수 있다. 위암 검진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위내시경 검진을 받은 사람들은 최대 65%의 위암 사망률 감소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증상이 없을 때도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위 선종이나 조기 위암이 발견되었을 때 시의 적절한 치료를 권고한다. 국가 암 검진에서는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촬영을 선택할 수 있지만, 위장조영촬영은 병변을 직접 관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급적 위내시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대장암은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향상되고 식습관이 서구화하면서 환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비만, 고지방식이(食餌), 붉은 육류 섭취, 가공식품, 술, 담배, 가족력 등도 대장암의 위험인자이다. 대장암은 위암과 마찬가지로 증상과 진찰만으로는 진단하기 어렵고, 대장내시경으로 병변을 확인하여 조직검사로 최종 진단하게 된다. 국가 암 검진 사업에서는 50세 이상 성인부터 매년 분변잠혈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분변잠혈검사는 위양성, 위음성이 높으므로 45~50세 이상에서는 무증상이어도 대장내시경을 검진을 권장한다. 대장내시경을 통해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장암의 전구 병변인 선종을 미리 제거할 수 있다. 단, 대장내시경은 위내시경처럼 단순히 금식하는 것으로 준비되지 않는다. 검사 3일 전부터 식사를 조절하며, 검사 전날 또는 당일엔 장정결제를 복용하여 장을 깨끗하게 비워야 검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꺼리는 경우도 많지만, 최근에는 복용이 더 수월한 장정결제가 많아져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아울러 마셔야 할 물의 양이나 맛 등도 개선되어 더 수월하게 검사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양질의 내시경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로서 꼼꼼하게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시경 검

위암·대장암, 예방 가능한 대표적 암
증상·진찰만으로 정확한 진단 어려워
50대, 증상 없어도 대장내시경 받아야



사를 받을 때, 세밀하게 검사하고 용종이 발견되면 즉시 제거할 수 있는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용종 제거 후 조직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 선종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적절한 추적검사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병원의 검진내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위암과 대장암은 국가 암 검진 사업에도 포함된 주요한 암 유형으로, 예방이 가능한 대표적인 암들이다. 증상이 없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검진이라 할 수 있고, 위암은 40세부터, 대장암은 45~50세부터 검진을 시작할 것을 권한다. 너무 자주 검진받을 필요는 없지만, 내시경 소견에 따라 적절한 검진 주기를 제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내시경을 제공하는 병원을 선택하고, 꾸준히 내시경 추적관찰을 하면서 위암과 대장암으로부터 자유롭길 기원한다. **만남**



강은애 성도
강서·구로·양천교구
내과전문의

3040세대 연합예배...믿음의 주역으로 힘찬 출발 다짐

지난 7월 23일 주일 찬양예배에서 3040세대 연합예배가 본당에서 드러졌다. 본당 중앙에는 청년부, 부부성경반, 4남4여 등 3040 연령층이 함께 모여 젊은 기운이 가득했다. 이날 설교는 3040세대를 전담하는 오병훈 목사가 창세기 37:5~10절을 중심으로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오병훈 목사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심으신 구원의 씨앗을 요셉의 꿈을 통해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 심으신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기쁨으로 풍성한 열매 맺기를 바란다”라고 권면했다. 이어 이날의 주역 3040연합찬양대의 특별찬양, 가족 어린 이들의 성경암송과 독창으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운



성 위임목사는 젊은 세대를 향해 “3040세대가 교회의 새로운 기둥으로 세워져 미래를 선도하는 교회의 주체로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중심이 되자”라고 격려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제45차 청년부 하기선교봉사...“누가 복음을 외쳐”

청년부(부장 김주현 장로)는 지난 8월 12일부터 15일 까지 보령·청양·부여군의 5개 지역교회에서 제45차 청년부 하기선교봉사를 진행했다. 청년들은 하기선교를



앞두고 복음을 전할 지역을 돌아보며, 연합하여 하늘보리 기도회와 준비 워크숍을 진행하고, 건강 팔찌를 선물로 준비하는 등 선교의 사명을 다졌다. 8월 6일 주일 찬양예배 시 발단예배에 이은 단기 수여식에서 봉사단 선서를 했다. 8월 12일에 출발한 하기선교봉사단에는 청년 단원, 교역자, 지도위원, 의료선교팀, 만나 식당 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자 300여 명이 참여했다. 폭염 중에도 워십, 율동, 이·미용, 마사지, 벽화 그리기, 마을잔치, 비파와 수금의 부채춤, 올드보이의 하모니카 공연 등 각 지역에 맞추어 다채롭게 사역하며 농촌교회 성도와 마을 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자리로 충만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교육부, 제32회 전국 어린이대회 금·은·동상 수상

지난 8월 17일(목) 교회학교아동부 전국 연합회에서 주최한 제32회 전국 어린이 대회가 “온 땅의 어린이를 그리스도에게로!” 주제로 광주 무등교회에서 개최했다. 이 대회는 성경고사, 성경암송, 영어 성경 암송, 글짓기, 그리기, 동화구연, 독창 등으로 열렸다. 전국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그리기 부문에서 은상(나지율-유년부), 성경암송부문에서 동상(박하윤-초등부), 성경고사 부문에서 동상(빙서윤-초등부), 영어 성경암송에서 금상(정유진-초등부)을 수상했다. 전국 어린이대회는 노회 대회에서 수상 전력이 있는 어린이만 참가할 수 있어, 이 부문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 자리에는 아동부 어린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아동부 담당 교역자들이 함께 참여해 수상의 영예를 축하했다.

제공 아동부

외국어예배팀, 인천 실미도로 하계연합수련회

러시아, 중국, 몽골, 네팔, 베트남, 미얀마의 각 언어로 예배드리는 선교부 외국어예배팀의 6개 언어 그룹 성도들이 연합하여 7월 30일에 인천 무의도의 <실미도 해수욕장>에서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1부 예배 후 향안 수련회 장소에서 민족 별로 다양한 노래와 춤을 선보이며 즐거운 시간을 만끽했다. 줄다리기 등 각종 게임도 진행하며 민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즐거움을 나누며 함께 뛰었다. 수련회 참가자들은 화창한 날씨에서 바다 수영을 즐기며 한국 생활의 외로움과 힘든 시간은 잠시 잊고 즐겁고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눴다. 이번 수련회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성도들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에너지를 주고 받으며 힘을 주는 시간이 되었다.

제공 정재훈 집사(선교부 외국어예배 총괄팀장)



권사회, 전교인 성경통독사경회...150여명 참여 '후끈'

전교인 대상으로 성경통독사경회가 권사회(회장: 송경심 권사) 주관으로 8월 21일(월)부터 25일(금)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50주년기념관 503호에서 진행되었다. 통독사경회를 인도한 박지운 목사(권사회 담당)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조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각 시대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상황을 설명하여 입체적인 성경통독을 경험하게 했다. 특히 신약 서신서의 배경이 되는 사도바울의 전도여행을 실제 지도(구글지도), 사진 등으로 현장감을 더하여 성경 읽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폭염 속에서도 150여 명이 참여하는 통독의 열정으로 은혜가 가득한 여정이 되었다. 박 목



사는 '늘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말씀 가운데 살자'고 강조했다. 5일간 통독과정을 이어가며 권사회 임원들은 풍성한 간식을 제공하며 섬김의 봉사를 아끼지 않았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김진란 권사, 제주 땅 기증 ... “통일 후 신의주에 교회 세워 주세요”

김진란 은퇴권사(서초교구)는 제주도에 소유한 토지를 통일 이후, 신의주 교회 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기증했다. 재단법인 서울영락교회유지재단(이사장 심재수 장로)은 7월 26일(수) 위임목사실에서 토지 기증식을 가졌다. 기증한 토지는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을 수산리에 있는 8,875㎡(2,685평)의 규모다.



평안북도 신의주 출신인 김주선 은퇴장로와 김진란 권사 부부는 언젠가는 고향인 신의주에 교회를 건립하겠다는 꿈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 토지는 제주도 신공항이 예정된 인근 지역에 있으며, 감정가액도 높기 때문에 통일 이후 북한 교회 건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권사는 “청지기의 삶을 살면서, 부모님이 지으신 교회를 따라다니며 어릴 때부터 품어왔던 생각을 조금이나마 실천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김 권사는 일상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분으로, 기드온 사역 전국부인회 회장도 지내며 성경 기부에도 힘쓰고 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갈보리찬양대, 50주년 감사음악회 - 은혜의 찬양

지난 7월 30일,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갈보리찬양대 감사음악회가 베다니홀 1, 2층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성황리에 드려졌다. 이번 음악회는 “은혜의 찬양”이라는 주제로 박신화 장로가 지휘하고 오르간을 박소인, 피아노를 김은진이 연주하며, 알테크무지크 협연으로 총 11곡이 연주되었다. 갈보리찬양대의 전 대원이 악보를 암기하여 더욱 은혜롭게 드려졌다. 고전 성가부터 은혜의 성가, 소프라노 한나형, 바리톤 안대현 대원의 솔로, 그리고 창립 12주년을 맞는 칼 트리오(CAL TRIO 플루트, 가야금, 피아노)가 특별 출연해 지난 50년의 은혜를 회고하며 돌아보는 감동의 무대를 만들었다.

특히 마지막 앙코르곡으로 지난 6월 빌리그레이엄 한국전도대회 50주년을 맞아 박신화 장로의 지휘로 1만명



의 성가대가 부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선사하여 음악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했다. 이날 김운성 목사는 “제가 50년이라는 시간 속 오늘 참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고 소감을 전했다. 갈보리찬양대는 50주년을 기념하여 8월 16일(수)~19일(토)에 지방순회연주를 가졌다.

취재 인미 기자

영락사회복지재단,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 위탁 운영

영락사회복지재단(이사장 박홍준 장로)은 새로운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되었다. 재단은 이미 2010년부터 경기도 하남시에서 영락노인전문요양원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령인구 증가로 서울 지역에서도 노인복지사업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재단은 지난 8월 1일부터 서울지역 재가복지사업(헤브리재가노인복지센터)을 시작하였으며, 서울시청에서 총 7개 법인을 대상으로 열린 위탁선정 심사에 참여하여 8월 28일(월) 운영체로 최종 선정되었다.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는 은평구 수색동에 위치하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총 81명의 어르신을 모실 수 있는 장기요양 입소시설이다. 올해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2월 개관할 예정이다. 박홍준 이사장은 “수십년간 노인복지사업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



탕으로 내 부모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공 영락사회복지재단

일꾼(The Reaper)

대자연, 그리고 수확의 수고

보스턴 출신의 자연·사실주의 화가인 '원슬로 호머(1836~1910)'는 19세기 미국 예술계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정식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추어 화가였던 모친의 영향으로 일러스트레이터로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가 그린 작품들은 주제가 매우 단순하지만 강렬하고 풍부한 표현으로 밝은 색채와 자연의 빛을 화폭에 담았다. 이는 유럽 중심의 미국 화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측면으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으며, 아직도 남아있는 그의 작업실은 미국의 국가기념물로 보존되고 있을 정도로 미국의 대표 화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 그림은 호머 특유의 사실주의 스타일을 보여주며, 인간의 노력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한다. 작품 속의 풍악은 노동자의 힘과 열정을 상징하며, 그의 힘센 동작과 표정은 수확의 어려움과 노력을 전달한다. 광활한 들판과 푸른 하늘을 표현한 작품의 배경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농촌의 풍경을 강조한다. **만남**

글 정재원 편집위원

2023년 9월호 통권 595호

발행 2023. 9. 1.

발행인 김운성 지도목사 강승훈 편집인 김태영 편집장 권오란

편집위원 박순복 김재원 이형일 박선이 정용성 김성문 김성수 류정현 안동현 안하운 이동훈 이혜순 정재원

기자 김경옥 박진현 이재향 이현지 인미 최윤미 사진기자 원종석 유승현 교열 계영희 이광미 유승효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design D.I

스마트한 e세상

만남 e-book

mannam.youngnak.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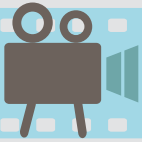
만남 웹진

www.youngnakmn.net



영락시어터 9월 상영 영화

(소강당, 주일 오후 2시)



가족, 그 먹먹한 감동으로 초대

9/3 블라인드사이드(The Blind Side, 2010)

감독: 존 리 행콕 주연: 산드라 불록 상영시간: 2시간 8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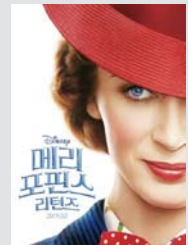
평생 '가족'을 가져본 적 없는 청년
그에게 기꺼이 '엄마'가 되어준 한 사람
서로의 인생을 바꾼 그들의 행복한 만남이 시작된다!



9/10 메리포핀스 리턴즈(Mary Poppins Returns, 2019)

감독: 롭 마샬 주연: 에밀리 블런트, 린 마누엘 미란다, 벤 위쇼 상영시간: 2시간 10분

행복한 상상을 이루어주는 해피메이커 '메리포핀스' 모두가 기다려온 가장 황홀한 경험이 펼쳐진다! 체리 트리가 17번지에 사는 마이클과 세 아이는 아내와 엄마를 잃고 집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해 슬픔에 잠긴다. 어느 날,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마이클의 가족에게 다시 돌아온 '메리포핀스'는 사랑스러운 마법으로 가득 찬 황홀한 경험을 선사하는데...



9/17 12명의 성난 사람들(12 Angry Men, 1957)

감독: 시드니 루멧 주연: 헨리 폰다, 리J.콕, 에드 베글리 상영시간: 1시간 36분

정적이 감도는 법정. 한 소년의 살인사건에 관한 재판의 최종결정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침묵만 이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미국에 사는 18세의 스페인계 소년이 친아버지를 예리한 나이프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이미 재판장은 소년의 유죄를 예상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이다. 최후의 판결을 앞둔 12명의 배심원은 최종결정을 위한 회의에 소집되고, 자신의 결정에 관해 투표하게 되는데...



9/24 집으로(The Way Home, 2002)

감독: 이정향 주연: 김을분, 유승호 상영시간: 1시간 27분

"할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 손주 '상우'예요"
도시에서 사는 7살 개구쟁이 '상우'가 외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신 시골집에 머물게 된다.
말도 못 하고 글도 못 읽는 외할머니와의 시골살이... '상우' 인생 최초의 시련은 과연 최고의 추억이 될 수 있을까?





일꾼

The Reaper

윈슬로 호머(Winslow Homer)

종이에 수채(watercolor on paper), 1878

▶ 작품 내용은 64페이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